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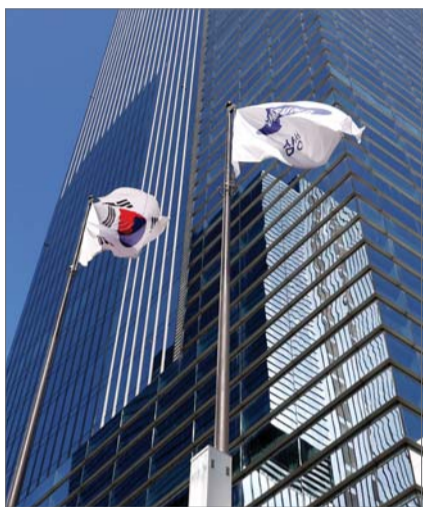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76.88 (-12.09)	751.81 (-2.27)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918 (-0.017)	1378.40 (+7.50)

인력 고령화... 인적 쇠신 불가피 반도체 사장단 중심 칼바람 예고

위기의 삼성, **골든타임** 잡아라

〈上〉 세대교체

3분기 '어닝쇼크'로 위기론 확산
업계 안팎서 인사정비 필수 지적
연말 임원인사 30% 감축 가능성
DS부문 사장단 전원 교체 전망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악화 여파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전 사업부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인적 쇠신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쇠신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선 대대적인 인사 정비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내부서도 인력 고령화가 주요 실적 부진으로 꼽히며 사장단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3~4년 사이 CL3(차·부장급)에 해당하는 40대 이상 직원이 늘고 20대 직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전 부회장은 최근 사과문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도체 수장의 이례적인 사과와 고강도 쇠신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연말 임원 인사에서 30%가량 인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사장단 전원 교체 유력

삼성의 고강도 쇠신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DS부문의 사장단 전원 교체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이장배 메모리사업부장과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은 선임된 3~4년이 지났다. 하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현재 이장배(메모리사업부장), 최시영(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시스템LSI사업부장), 남석우(제조&기술담당 사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5명의 사장단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후임으로는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 부사장,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윤태양 안전보건책임자(CSO) 이 물망에 오른다. <2면에 계속>

/구남경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초 등 4곳에 5만 가구 공급

주택 추가공급 방안

서초, 대곡, 의왕, 의정부 선정
서리풀 지구에 2만 세대 조성
합리적 가격에 젊은층 우선 공급

정부가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비롯해 고양대곡, 의왕, 의정부 등 4곳이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된다.

당초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나 경기 하남 감일·감북동 등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우면동, 원지동 등 2만호) ▲고양대곡역세권(내곡동, 화정동 등 9000호) ▲의왕오전·왕곡(오전동, 왕곡동 등 1만4000호) ▲경기 의정부 용현(신곡동, 용현동 등 7000호) 등 4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리풀지구는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고속도로·분당내곡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정부는 신분당선 추가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리풀지구의 경우 총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만1000호)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양대곡역세권은 GTX-A(2024년 말 개통 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다. 개발 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됐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다.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신규택지 조성 시 자족 기능 확보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르면 오늘 윤곽

〈한국시각〉

美 대통령 선거 투표 시작
마지막까지 '초박빙' 예고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현지시각으로 5일 0시 막이 올랐다.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후 2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치뤄질 전망이다. 투표 종료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주별로 투표소 운영시간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 대선 투표는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승부의 윤곽은 이르면 5일 밤 늦은 시각, 한국시각으로 6일 오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2~4면>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뉴햄프셔주의 산골마을 디스빌노치에서 첫 개표 결과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얻어 동률을 이뤘다. 이날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북단의 캐나다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디스빌노치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에 투표소를 열고 투표의 첫 테이프를 끊어왔다.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의 경우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어 동북부에 있는 버몬트주가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5시(한국시간 오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다. 아울러, 동부에 위치한 뉴욕주, 버지니아주, 뉴저

지주, 메인주 등이 오전 6시부터 투표가 개시됐고, 워싱턴DC 등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미국 중부와 서부 지역도 시작 시간이 오전 7시 안팎으로 비슷하지만, 시차로 인해 시작 시간은 더 늦다. 특히 워싱턴DC 등보다 5시간 느린 하와이주는 오전 7시에 투표를 시작하지만, 동부 기준으로 5일 정오에야 투표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5일 밤 늦은 시각(한국시각 6일 오후)에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관측도 있다. 과거의 대선을 보면 늦어도 다음날 승패가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일에서 한달 이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직전 대선에서도 4일이 지나서야 승자가 가려졌다. /원승일 기자 won@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대폭 확대" /사진 뉴스스
▲ 이준석 "당, 모든게 이준석 탓... 대통령실 말미잘 수준 대응"

▲ 나경원 "野, 북한인권재단 이사 하루빨리 추천해야"
▲ 여당 "나무위키 운영사, 성착취물 사이트 소유"



▲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앞두고 6일 당 중진의원 회동 /사진 뉴스스
▲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도 대통령과 연락

‘美 우선주의’ 한목소리… 중산층 강화 vs 부자 감세 충돌

〈해리스〉

〈트럼프〉

민주당 vs 공화당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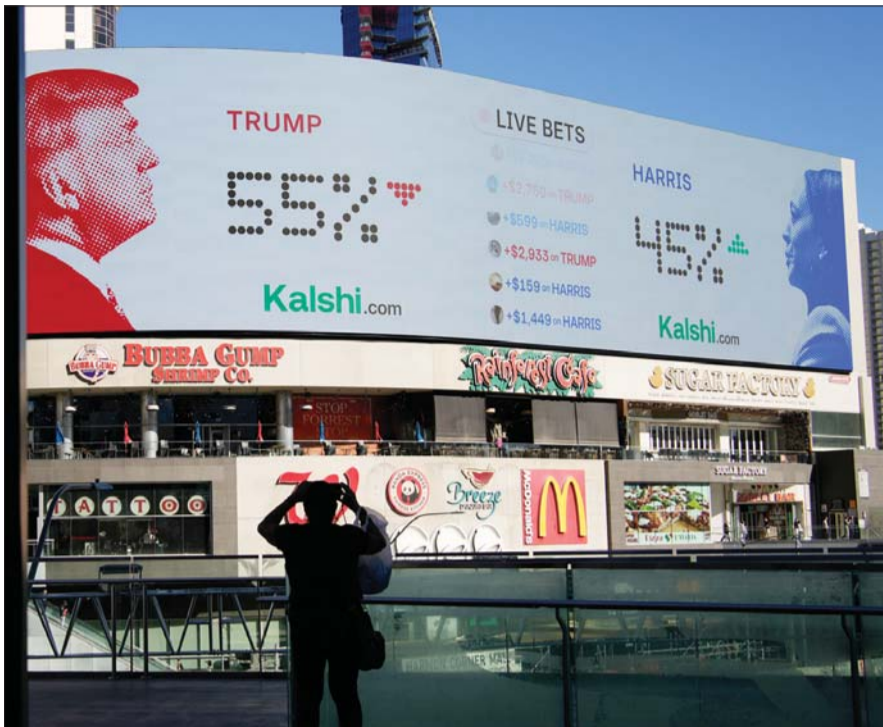
해리스 ‘기회경제’ 토대 중산층 공약 자녀 세액공제 등 중산층 1억명 감세 트럼프, 법인세 21%→15% 인하인 ‘反 이민 정부’로 일자리보호 천명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강화될 것이라 관측이다. 두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경제, 외교 등 다수 분야에서 극단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보호 무역주의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반면, 계층별 선호도에서 보듯 두 후보 간 경제 정책은 명확히 엇갈린다.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강화 공약을 내놨다. 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백인 고소득자, 기업가 등 소위 ‘부자감세’라 일컫는 법인세 인하 카드를 내걸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두 후보 중 누가 집권해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올해



4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남성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배팅 배당률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AP 뉴시스

도 증가세여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도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부과되는 관세 정책만 봐도 두 후보는 대동소이하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이미 집권 시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도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보다 강한 관세 부과책을 들고 나왔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대 60%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후보도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 무역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 중국의 전략 산업 관련 물품에도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미국내 공장 건설 추진도 지속할 전망이다.

◆중산층 감세 vs 법인세 인하

흑인, 여성 그리고 중산층, 해리스 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해리스 후보는 ‘기회 경제’를 토대로 한 중산층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녀 세액공제를 3600달러로 늘리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1억명에게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고소득층 대상으로 강력한 증세를 선언했다.

반대로, 백인 남성, 고소득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경우 법인세 대폭 인하로 맞서고 있다. 법인세는 이전 집권 당시 21%까지 내린 것인데도 15%까지 인하안을 내놨다. 소위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에 나설 방침이다.

낙태권도 해리스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낙태권을 인정할 관건인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된 이후 20여개 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됐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앞세워 반(反)이민 정서로 지지층을 모으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외교 부문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기조대로 동맹 중심 다자주의가 예상된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상당한(sizable) 규모로 내고 있다”고 말해 한국계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이전 집권 때처럼 고립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한국이 미군 병력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방위비 분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전 1기 행정부 때처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판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도하는 등 철저한 ‘미국식 고립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고령화된 인력...’서 계속

공정위 “전세 사기에도 보증취소?... HUG 약관 고쳐야”

HUG 관련약관 시정 권고 “임대인 귀책사유만으로 조항 깨져 약관법 위반... 고객에 불리한 조항”

앞으로 주택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가 HUG 임대보증금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HUG 보증을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깡투자’로 주택 190채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와 전세

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약관을 통해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

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진만·남석우 등 DS 사장단 ‘물망’

한진만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디램 설계 연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스타트업 창업과 미국 반도체 기업 근무했다. 이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으로 합류, 설계·개발·기획 등을 두루 거쳐 2022년부터 북미 사업부를 맡고 있다. 한부사장은 메모리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석우 사장은 반도체 공정개발 및 제조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연세대 세라믹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반도체 연구소에서 메모리 전제품 공정개발을 주도해왔다. 파운드리에서 TSMC와 벌어진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덕현 대표는 반도체 개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대표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제품의 기술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과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석박사로 학업을 마쳤다. 이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솔루션개발실장, 시스템 LSI사업부 LSI개발실장, SOC개발실장, 센서사업팀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DX(원제품)부문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이 선방하며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사내이사 중 한홍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상속세율 인하, 자녀 공제금액 대폭 확대할 것”

대통령실,尹 임기반환점 브리핑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 소개’ 브리핑을 가졌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낮은 세율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 인하 기조를 설명했다.

또 성 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

제개편에 대해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추가 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

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주주총실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환율 1350원~1400원대 전망...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

원·달러 환율

해리스, 경제정책 유지... 국제 안정 트럼프, 고관세·국채 발행량 증가 개표 상황에 따른 변동성 주의해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원·달러 환율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달러 강세(환율 상승)를, 민주당 해리스 현 부통령 당선 시 달러 약세(환율 하락)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사전투표를 진행한 미국 대선이 5일(현지시간) 본 선거에 돌입했다. 본 선거 직전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 근소한 우위를 점했지만, 앞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섰던 만큼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경합주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90원 수준까지 상승(원화 가치 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년 만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6억 9000만 달러로 전월 말(4199억 7000만 달러)보다 42억 8000만 달러 줄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락)했지만, 이달 들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해 환율은 달러당 137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해리스 당선 시 경제정책의 연속성 및 국제 금리 안정 전망에 따라 추가 약세로, 트럼프 당선 시 고관세·국채 발행량 증가 전망에 따라 추가 강세로 접어들

망이다.

다만 지난 2016년 미 대선과 같은 급격한 환율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달러당 30원 이상 치솟았고, 연말까지 두달에 걸쳐 80원 가까이 상승

한 바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미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고, 대선 이후에야 급리와 환율에 빠르게 반영됐다”며 “이번에는 금리와 환율이 대선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환율이 (전망) 80~90% 이상은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당선 시 원·달러 환율 전망치로 달러당 1350원 전후를, 트럼프 당선 시 전망치로 1400원 전후를 제시했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 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고점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며, 해리스 당선 시에는 환율이 1350원 아래로 크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이번주 글로벌 외환 시장은 미 대선 결과에 결국 좌우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밴드는 달러당 1330원에서 143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 대선은 한국시간으로 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출구조사 결과도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공개되지만, 주별 투표 방법과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어 당선자 확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표 진행에 따라 환율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추가 과세 등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FOMC 금리인하 속도·폭 ‘안갯속’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이민제한 등 정책에 따라 물가 영향 “연준, 정치적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10% 보편관세와 이민제한 정책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트럼프 후보의 압력에 굴복할 지는 미지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낮췄다.

1년 2개월간 머물러 있던 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바뀌자 시장의 관심은 인하 속도 즉, 인하 폭에 쏠린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8.1%로 반영하고 있다. 물가는 둔화하고 있고, 고용시장 열기가 식어가며 우려했던 실업률 또한 4.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인하 흐름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중국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며 요동쳤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57.59포인트(0.61%) 하락한 4만1794.60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관세와 함께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품 가격에 추가된 관세까지 더해지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민제한 정책으로 불법노동자 830만명이 쫓겨날 경우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건비가 상승, 물가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후보는 수시로 자신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며 재임 당시에도 금리 인하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둔화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를 되레 상승시킨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온 연준이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압박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겸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하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온다.

해리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수입품 과세대상을 보다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일부 가격에 관세가 더해지는 만큼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간기금으로 지역투자를 활성화해 이민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유입을 서서히 줄이겠다는 것으로 당장 고용시장의 타격은 적지만, 추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웰리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연준은 예상되는 정책완화 경로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비트코인 상승장 유력... 최대 14.5만달러

가상자산

두 후보 산업발전 친화적 입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 당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5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7만35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만7900달러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접전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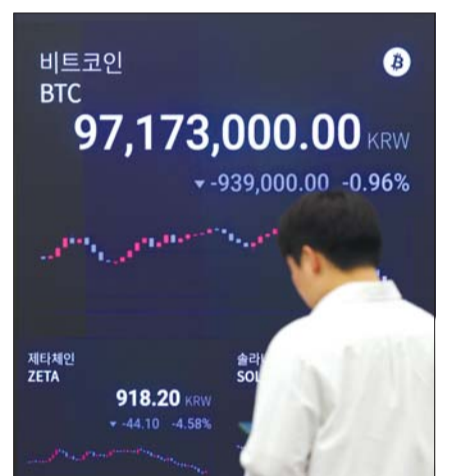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 칼리지와 함께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7개 경합주에서 7879명의 투표 참여 의사가 분명한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개 주에서 앞서고 2개 주에서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발표한 전국 유권자 여론조사에는 해리스 후보가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6%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NBC의 대선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9%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에 트럼프 당선이 베풀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가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촉진을 약속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도 가상자산 등 혁신 기술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승폭에서는 차이가 날 것이라 분석이다. 트럼프 후보 재선시 최대 14만5000달러, 해리스 후보 당선시 최대 8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 없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 재선 성공시 다음주 중으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 후보 당선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반도체 법안 불확실성 속... 韓, 보조금·시장 진출 시험대

반도체 산업

트럼프, 재집권 시 보조금 축소
해리스, 현행 지원정책 유지 ↑
美 내 반도체 생산 계획 영향 커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함에 따라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25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날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특히 이번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데에는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s, CHIPS ACTS)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이 서로 대치되는 데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반도체 법을 통해 각각 64억 달러(9조 원), 4억 5000만 달러(6200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이를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시간으로 6일부터 본격적인 47대 대선 투표를 실시한다. /뉴스1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주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두 기업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도체 법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총 2800억 달러의 투자가 투입되는 해당 법안은 해

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연구·제조 시설 설립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됐다. 이중 527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산업 육성을 위해 확정 배정됐고,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390억 달러와 제조 비용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 연구·교육을 위한 130억 달러 등이 책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미국 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자한다. 그는 최근 팹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반도체 사업 주도권을 모두 가져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특히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을 15~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세율 인한 세수 확보 차질로 정부 보

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되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큰 맥락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법 등은 그대로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은 물가 상승 억제, 탈탄소, 디지털화, 반도체 공급망 개발 촉진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앞서 해리스 부통령이 법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당시 상원에 상정된 IRA가 표결에서 동물이 되자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국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화 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방산·원전 vs 신재생에너지 '수혜주 전쟁'... 美 증시 동조화 예상

(트럼프)

(해리스)

국내 증시 영향

코스피·코스닥 변동성 등 확대 예상
해리스 당선 시 국내 주식시장 유리

미국 대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당수 국내 투자자들이 대선 결과의 수혜주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산주와 원전주 등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등의 막연한 전망이 유투브나 포털 등에 널려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개인은 매수에 나섰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12.09포인트(0.47%) 하락한 2576.88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2.27포인트(0.30%) 내린 751.81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금융투자세 폐지 가능성으로 상

역대 미국 대선 이후 S&P 500 지수 추이

연도	집권당	대선 다음날	1주 후	한달 후	연말
1980년	공화당	2.12%	1.72%	5.77%	5.21%
1984년	공화당	-0.73%	-2.61%	-4.49%	-1.86%
1988년	공화당	-0.66%	-2.48%	0.52%	0.93%
1992년	민주당	-0.67%	-0.31%	2.38%	3.76%
1996년	민주당	1.46%	2.16%	4.23%	3.72%
2000년	공화당	-1.58%	-3.42%	-6.17%	-7.79%
2004년	공화당	1.12%	2.97%	5.29%	7.20%
2008년	민주당	-5.27%	-10.62%	-15.96%	-10.19%
2012년	민주당	-2.37%	-3.77%	-1.01%	-0.15%
2016년	공화당	1.11%	1.91%	4.98%	4.64%
2020년	민주당	2.20%	5.23%	8.83%	11.48%

자료: CNBC

/뉴스1 그래픽

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라 다시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 확정까지 5일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그 기간 동안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4일이 소요된 바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개표는 한국 시간 기준 수요일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의 접전 상황을 감안할 경우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는 데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시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간 무역 정

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규제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관련 수혜주 찾기도 활발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결과는 불확실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금융시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취임 이후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내놓으면서부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방산주와 원전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재임 기간보다 더 강경한 외교 정책을 내세우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한 바 있어, 국내 방산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증권의 황준호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전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 산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원전 테마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2

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가장 큰 그린산업 육성책"이라며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연속성이 확보돼 재생에너지, 전기차·배터리, 수소 등 모든 영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리스까지 당선되면 효과가 배가된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트럼프 당선보다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분석도 나왔다. 이운찬 iM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이미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반영된 상황이라 지수의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관세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물가상승률 1.3%, 45개월만에 최저... 배추·무는 50%대 급등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동향'
8~9월 소비자물가 연속 1%대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 오르는 데 그치면서 2개월째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4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다만, 배추·무가 50% 넘게 오르는 등 채소류 가격은 전년 같은 달

과 비교해 15%대의 상승 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3% 올랐다.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이어오다가 9월(1.6%)에 1%대로 떨어지던 뒤 두 달 연속 1%대 낮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이달 9월 물가상승은

2021년 1월(0.9%)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소 폭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석유류(-10.9%)가 10%대의 내림세를 보이며 물가안정세를 이끌었다. 2023년 7월(-9.5%) 이후 15개월 사이 최대 하락 폭이다. 석유류 물가는 전월 마이너스로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내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체 물

가를 0.46%포인트(p) 끌어 내렸다. 과일류도 내렸다. 신선과실 물가가 전년보다 10.7% 떨어졌는데, 품목별로 사과(-20.0%), 포도(-6.5%) 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반해, 채소류는 15.6%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특히, 김장재료인 배추(51.5%)와 무(52.1%)가 크게 상승했다. 상추(49.3%), 호박(44.7%), 토마토(21.3%) 등이 크게 오르면서다. 채소류

는 이번 달 물가를 0.25%p 끌어올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채소가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두 달 연속 1%대 물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석유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과일 하락도 영향이 컸다"며 "채소와 외식 물가는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석유류랑 과실의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AI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與·경제계 “제2의 노란봉투법” vs 野 “충실의무 확대 필요”

與 “이해관계 다른 주주의 이익 위한 충실의무 규정 자체가 논리적 모순”
野 “이사에 주주 보호의무 부과 취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단체도 반대 입장을 적극 펴고 있어 제2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불적분할 후 사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 등의 가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제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의 반대에 힘입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것처럼, 상법 개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 상 주주충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천치라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침해 여지가 많다”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내일 대국민 담화... “모든 사안 설명”

추경호, 국민소통 일찍 가져달라 제안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는 담화 돼야”
친윤계 “국면전환 위한 인적쇄신 지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각종 의혹,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등 최근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논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저녁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적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 및 쇄신 개각,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앞줄 가운데)과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 두 번째),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오른쪽 세 번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與野, 예결위 이견... 예산심사 ‘치열’ 예상

與 “미래세대 부담 줄이기 위한 것”
野 “자멸적 긴축 재정... 악순환 고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회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 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

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尹 “4대개혁 완수해 자유·번영 길 열 것”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례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4대 개혁을 완수해 도약을 이루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새마을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용병을 보내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새마을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면서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수석비서관회의, 총리 주례회동에 이어 재차 4대 개혁 완수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금융지주 생보사, 손실 최소화로 3분기 실적 방어 성공

신한라이프, 누적 순익 4671억
영업 경쟁력 강화 등 APE 성장
ALM 전략으로 자본건전성 확보

KB라이프, 누적 순익 2768억
보험영업손익 증가로 손실 만회
CSM 지속성장... 수익성 청신호



신한라이프 사옥

KB라이프생명 사옥

/각사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이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3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확실한 성장 보다는 상쇄와 만회를 통한 손실 최소화로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안정적 기반의 이익창출을 시현했다.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빛을 봤다는 분석이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395억원) 증가했다. 금융이익은 1196억원으로 21.8% 감소했으나 보험이익이 18.4% 증가해 전체적인 순익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연납화보험료(APE)와 신지급여력제도(K-ICS·릭스) 비율 상승으로 영업채널 경쟁력과 자본 건전성 및 재무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

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대비 63% (4696억원) 성장한 1조2155억원을 기록했다. K-ICS는 20.6%포인트(p) 상승한 230% (잠정치)로 집계됐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이후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CSM은 7조3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5억원 감소했다. 신한라이프의 CSM은 올해 1분기 7조2776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영업채널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품 전략을 통해 APE가 성장했다"며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산부채종합 관리(ALM) 전략으로 높은 자본 건전성과 재무 안전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KB라이프생명은 3분기 실적에서 성장이란 방어에 만족해야 했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순익은 2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실적이 소폭 하락했으나 투자영업손익 감소를 보험영업손익이 만회해 손실을 최소화했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투자영업손익은 15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267억원) 감소했으나 보험영업손익은 9.9% (214억원) 증가한 2365억원을 기록해 손실폭을 줄

였다.

K-ICS 비율은 286.4%로 전분기 대비 12.8%p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9.4%p 상승해 우수한 자본 건전성을 입증했다. 286.4%는 업계 상위권 수준으로 지난 상반기 기준 생보사 전체 K-ICS 비율(212.6%)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CSM은 올해 지속 성장 추세를 이어갔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CSM은 3조1653억원으로 지난 2분기 3조1446억원 대비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영업 활성화에 따라 3분기까지 확보한 신계약 CSM은 3730억원으로 집계돼 미래 수익성에 청신호를 켜다.

KB라이프생명은 관계자는 "영업력 회복을 바탕으로 신계약 CSM이 증가해 CSM 잔액이 상승했다"며 "K-ICS 비율도 200%대 후반으로 충분한 자본 건전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금융, 무형자산 '인적 자본' 체계적 관리

국내 금융권 최초 ISO 30414 인증
기업가치 제고로 밸류업 비전 선행

KB금융그룹은 무형자산인 인적자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ISO 30414'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30414'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발표한 인적자본 보고지침 가이드라인이다. 비용과 다양성, 리더십, 조직문화, 생산성 등 11개 영역 5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도이체뱅크, 알리안츠 등 글로벌 선도 금융기업들 역시 인적 자본 관리를

위해 각각 2021년, 2022년에 'ISO 30414' 인증을 취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2020년 기업에 대한 공시 규제(Regulation S-K)를 개정해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해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1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상장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개정해 인적자본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본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KB금융은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권 최초로 'ISO 30414' 인

증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재무적 가치에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 인적자본 관리를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양종희 회장의 경영철학과 일치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ISO 30414' 인증 취득을 계기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KB만의 차별화된 밸류업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김보현

현 백정완 사장, 내달 공식사임
조직 안정화·책임경영 토대 마련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로 인수과정을 총괄했던 김보현 총괄부사장(사진)이 낙점됐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이사회를 통해 김 총괄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대표이사 예정자는 1966년생이다. 대한민국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2021년 대우건설 인수단장을 맡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했다. 지난 2022년 중흥그룹 편입 이후에는 대우건설 고문직을 1년간 역임했다. 2023년, 2024년에는 총괄부사장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외 현장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대우건설은 김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해 "오랜 기간 군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면서도 조직 구성원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현 백정완 사장은 다음달 대표이사직



에서는 공식 사임하지만 사장직은 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백 사장의 대표이사 사임 배

경에 대해 "내년에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빠른 조직 안정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백 사장의 사임 결정으로 대우건설은 이달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신임 대표이사 체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다. 내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 정비를 한발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백 사장은 회사가 그룹 체제로 편입되는 지배구조 변화 속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고금리와 원가상승 같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성장시켰다"며 "조직 안정화를 위해 대표이사직 사임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LH 공간정보 플랫폼 '내집어디' 확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간정보 플랫폼인 '내집어디'를 통해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한다

고 5일 밝혔다. '내집어디'란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돼왔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정보, 수익계약 중인 토지 판매 현황, 상가 분양 정보에다 통계기능까지 제공하여 연간 약 30만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플랫폼 기능 확장을 위해 총 4개 지방공사(경주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 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디지털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지난 4일 임성기 중앙이엠씨 대표(왼쪽)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가운데)에게 자사 생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협은행

이석용 행장, 지역강소기업 현장소통 강화

NH농협은행, 中 企 애로사항 청취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기업인 중앙이엠씨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 5일 밝혔다. 중앙이엠씨는 1993년 설립되어 제철 및 산업플랜트 기자재와 특수기계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2023년에는 11개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4년 PO SCO 우수공급사(17년 연속), 현대제철 우수공급사로 인증을 받았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중앙이엠씨가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산업플랜트 기자재 및 금속 구조물 제조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지역 소재 우수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원전 설계 수주

코즐로두이 대형원전 2기 추가 건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대형원전을 수주하며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국무회의 청사에서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계약서 명식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불가리아 총리,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에 대형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같은 날 오후 현대건설은 소피아 오브차쿠펠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오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윤영준 사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가리아 종합건설기업 GBS와 현장 가설 인프라 설계에 대한 계약도 체결했다.

/전지원 기자

철강·조선노사 임단협 난항... 산업계, 파업리스크 '촉각'

노사 갈등 심화... 협상 지지부진
파업 확산시 산업계 전반 악영향
"상호협력 절실, 대화의 길 찾아야"

철강·조선업계의 임금 단체 협상이 쉽게 진전되지 않아 파업 리스크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지난 달 31일 제 10차 교섭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복리후생 포인트 21만원 신설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복지사업기금 200억원 조성 ▲자사주 25주 지급 ▲격려금 300% 지급 ▲학자금

지원 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딪혀 있다. 급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을 냈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 지원금 차등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파업을 통해 생산차질을 유발하기도 했다.

조선업계의 노사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대형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10월 3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파업 중인 노조와 회사 경비대사

이 폭력 사태가 발생해 갈등이 한층 고조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0일까지 7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부터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측은 기본급 10만20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을 1차 제시안으로 냈으나 노조가 반려했다. 이후 2차 협상안으로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상품권 30만원 등 조건을 상향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9800만원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내세워 사측과 큰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수주 호황이 이어

지고 있으나, 파업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조선·해양 부분의 수주 목표 72억달러(약 9조 7200억원) 중 현재까지 68억달러(약 9조 1700억원)를 수주하면서 목표치의 94.4%를 달성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산업계에서는 파업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철강사들은 업황 부진으로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노사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노조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대한전선

美 수주액 7200억 돌파

대한전선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연이은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한전선은 미국 현지 판매법인인 T.E.USA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케이블 장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1년간 300억 원 규모의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며, 최장 3년 동안 최대 900억원의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동부에서도 약 2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두 건의 계약을 추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올해 총 수주액은 72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전선이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22년의 연간 수주액(약 4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생산 현지화를 위한 시설 투자 검토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기아, SUV 혁신 박차... 정원정 부사장 "새로운 기준 제시"

'더 뉴 스포티지' 미디어 프리뷰
디자인, 편의 사양 등 신차 수준 진화
1.6 가솔린 터보모델 2836만원부터

3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의 '스포티지'가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XYZ Seoul'에서 미디어 프리뷰 행사를 열고 '더 뉴 스포티지'를 공개했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스포티지는 매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아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로 성장했다"며 "국내 95만, 글로벌 770만 고객이 찾은 기아의 얼굴이자 혁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감을 주는 디자인"이라는 기아의 브랜드 철학에 맞게 진화하는 스포티지를 통해 새로운 혁신의 장을 열겠다"며 "준중형 SUV 시장



더 뉴 스포티지. (좌)외장 (우) 실내



/기아

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내외장 디자인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신차 수준으로 진화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특화 주행 기술을 넣는 등 주행 성능도 높였다. 또 차량과 사용자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SDV 기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고객 선

호도가 높은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특히 가솔린 1.6터보 모델에 적용된 8단 자동변속기는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HoD)와 위험 상황을 시트 진동을 통해 알려준다. 여기에 기아 모델 중 최초로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적용했다.

더 뉴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2836만원부터, 2.0 LPI 모델이 2901만원부터 시작된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3315만원부터 3964만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전 모델 대비 트림에 따라 200만원 가량 인상됐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타이어, 세마쇼 참가 SUV 타이어 기술력 뽐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서스포츠유틸리티차(SUV) 타이어 기술력을 과시한다.

한국타이어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8일(현지시간)까지 나홀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2024 세마쇼'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전용 부스를 마련해 SUV용 타이어 브랜드 '다이나프로'와 세계 최초 풀 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 글로벌 전략 브랜드 '라우펜' 등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자동차 문화 선도 브랜드 '도넛 미디어'와 협업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 "AI,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

AI 포럼 2024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 등 논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석학들과 머리를 맞대고 AI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AI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5일 '삼성 AI 포럼 2024'를 개최했다. 1일차는 삼성전자 SAIT가 주관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고, 2일차는 삼성리서치가 주관해 서울 R&D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와 컴퓨터 공학 분야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삼성 AI 포럼 2024'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방향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어떻게 AI를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첫째 날 포럼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요슈야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교수는 "AI 안전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 대중들도 AI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얀 르쿤 교수는 기초 강연을 통해 현재 거대언어모델(LLM)의 수준과 한계를 설명하고, 기계가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술 세션에서는 AMD CTO인 조 세프 마크리 부사장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AI'를 주제로 AMD의 AI 솔루션을 소개하고 AI 플랫폼과 협업의 중요성, AMD의 강점 등을 피력했다.

둘째 날 포럼은 '모두의 일상생활을 위한 디바이스 AI'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대현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바이스 AI의 일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안 호록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식 그래프를 적용한 개인화 AI 서비스 기술'이라는 주제로 키노트 발표를 맡았다. 교수는 지식 그래프 시스템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검색, 추천 등의 주요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밝기·음량 조절도 AI가 척척”... 맞춤형 미디어 경험 선사

KT, 세계 첫 8K AI IPTV 출시
8K UHD·AI, 선명한 화질 등 구현
조도 센서·AI 킷모드로 자동 조절
실시간 수어 통역, 편리한 시청 환경

KT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지니 TV 셋톱박스 4'를 통해 AITV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T는 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IP)TV 최초로 8K 화질을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AI 셋톱박스를 공개했다.

지니 TV 셋톱박스 4는 세계 최초로 IPTV 셋톱박스에 8K UHD 칩셋을 탑재해 이용자에게 생생한 콘텐츠를 전달한다. 이 칩셋은 성능이 50% 향상된 중앙처리장치(CPU)와 AI 전용 프로세서(NPU, 신경망처리장치)를 통해 콘텐츠의 화질과 음향을 빠르게 최적화하고 고객 시청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8K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실시간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유튜브까지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KT는 몰입감 있는 시청 환경을 위해 지니 TV 셋톱박스 4에 조도 센서, 4개의 마이크, 안드로이드 TV OS 14,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다. 이를 활용



김훈배 KT 미디어 플랫폼 사업본부 전무가 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세계 최초 8K AI IPTV '지니 TV 셋톱박스 4'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해 지니 TV는 주변 환경과 콘텐츠 장르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 밝기와 음량 등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특히, 목소리 강조 기능을 통해 콘텐츠 대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도 있다.

◆고객 맞춤형 AI 기능과 스마트홈 연동으로 'AX 혁신'

지니 TV 셋톱박스 4는 AI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AI 골라보기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만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긴급 재난 방송 시 AI 휴먼이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AI 수어 기능'도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특히 AI 수어 기능은 청각 장애인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시청 킷모드'를 통해 1인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 시니어 가구 등 상황에 맞게 화질·음량·밝기를 조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도 센서를 셋톱박스에 처음으로 탑재해 재실 감지 기능도 제공한다. 고객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학습해 자주 사용하는 시간대에 TV 앞에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TV를 켜 즉각적인 시청 편의성을 제공한다.

TV가 꺼져 있을 때도 TV 화면을 'AI 배경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AI 배경화면 기능은 고객이 선호하는 배경화면을 추천하거나 오늘의 날씨, 오늘의 추천 도서 한 문장, 실시간 인기 채널 등 다양한 정보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향후에는 교통정보, 뉴스, 일정, 메모 등의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니 TV 셋톱박스 4를 통해 스마트 홈 구현도 더 쉬워졌다. 가전 기기의 전원을 켜면 셋톱박스가 리모컨 적외선(IR) 신호를 감지해 TV 화면에서 자동으로 연결 안내 표시를 해준다. 이전에는 TV에서 모델명과 제품명 등을 모두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이 간소화된 것. 가전 기기 연결 이후에는 음성 명령을 통해 간편하게 공기청정기, 에어컨, 조명, 커튼, 로봇 청소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지니 TV 셋톱박스 4의 월 임대료는 월 6600원(3년 약정)이다. KT는 지니 TV 셋톱박스 4 출시 기념으로 신청 고객 대상으로 '전용 스탠드' 선착순 1만 대를 무상으로 증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셋톱박스 모델에도 지니 TV 셋톱박스 4에 적용된 주요 AI TV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무)은 "KT는 IPTV 셋톱박스를 고객과 AI를 연결하는 'AI 허브'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 최우선 차원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글로벌 No. 1 수준의 미디어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T

'에스터' 북미진출 본격화 사용자 맞춤형 목표 설정

SK텔레콤이 글로벌 AI 에이전트(PAA) '에스터'를 최초 공개했다. 올해 클라우드를 거쳐 내년 북미 시장에 출시한다. 해외 AI 서비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는 것이다.

에스터는 단순 질의 응답, 검색을 넘어 사용자 요청에 대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완결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AI'를 지향한다.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화하고 할 일 목록을 생성, 서브 에이전트 연계까지 과정을 유기적으로 거친다.

에스터 사용자 핵심가치는 쉽고 간편한 계획 수립, 빈틈없이 꼼꼼한 관리, 신속한 응답이다. 모호하고 복잡한 요청에도 손쉽게 식당·숙박·교통 등 예약 구매까지 완결적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석근 SKT 부사장은 5일 'SK AI 서밋 2024'에서 통신사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논의하는 패널 토의 사회자로 참석해 주제 발표에서 '에스터'를 공개한다. 정 부사장은 "기존 AI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페인 포인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AI 에이전트 영역 기회가 왔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한국엔컴퍼니, 영업익 1372억... 3개 분기째 '매출 신기록'

3분기 매출 3812억 전년비 28%↑
배터리 제품 판매증가 등 주된 요인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가 올해 3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 3813억원, 영업이익 137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8.3%, 38.9% 증가했다.

특히 한국엔컴퍼니는 단일 분기 기준 3분기 연속 매출액 기록을 경신하며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조현범 회장 주도로 추진 중인 글로벌 프리미엄 성장 전략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

에서의 '한국(Hankook)' 브랜드의 프리미엄 AGM(Absorbent Glass Ma

t) 배터리 제품 판매 증가, 국내 업계 유일의 미국 현지 생산기지 보유 기업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북미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엔컴퍼니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을 지속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해 AGM 배터리 국내 출시에 이어, 올해에는 AMF 제품까지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중한 '한국' 브랜드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 고객들을 대상

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핵심 사업 회사 한국타이어의 지분법 이익 증가 요인도 수익성 개선에 일조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BMW 'M5', '메르세데스-AMG GT 쿠페' 등 고성능 차량을 비롯한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R&D 혁신을 통해 확보한 초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토대로 현재 전 세계 50여 개 브랜드 280여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ESG 활동 성과 한눈에

LG유플러스는 오는 6-8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소개하는 '2024 U+ ESG 페어(Fair)'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의 ESG 활동 성과를 임직원과 고객에게 공유하고,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LG유플러스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ESG 활동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로 구성되며, 용산사옥 1층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6월 가동을 시작한 1000kW급 대전 R&D센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롯해 LG유플러스의 배터리 충전차량과 이동 및 반려동물 특화 구호공간 등이 소개된다.

또 LG유플러스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운영을 통한 성과도 전시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LG유플러스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종합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친환경 캐릭터 'ESG 무너'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가로 2m, 세로 1.5m 크기의 '무너 큐브'를 돌리며 ESG 관련 키워드로 이뤄진 빙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혜민 기자

SKT "AI G3 도약위해 민관 원팀돼야"

SK AI 서밋서 '국가 AI 전략' 열려
한국 AI 전략·정책 방향 주제 발표

SK AI 서밋에 참석한 AI(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으로 집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 국가 경쟁력 등을 짚어보는 '국가 AI 전략' 세션이 5일 오후 'SK AI 서밋' 메인 행사장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국가 AI 전략 세션에선 현재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

장이 '대한민국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염 총장은 우리나라 AI 역량과 잠재력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세션은 정부가 주도한 국가 AI 전략 논의를 기업·민간 수준에서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 미국·중국에 이은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을 포함해 2027년까지 65조원 규모의 민간 AI 분야 투

자, 2030년까지 산업분야 AI 도입률 70%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이날 세션에선 주제 발표에 이어 국가 AI 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는 패널 토의도 45분간 진행된다. 염 총장이 사회를 맡는 가운데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성현 리베리온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AI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대담할 예정이다.

SK AI 서밋 첫 날인 4일 오후에는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유영상 SK텔레콤 CEO의 개회사로 문을 연 세미나에는 성

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AI 시대 경쟁 다이내믹스, 인프라 중심 국가 AI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국가 AI 비전은 사회의 어느 한 축만의 역할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민관,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SK AI 서밋을 통해 국가 AI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폭이 한층 넓고 깊어졌다"며 "SK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탬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jia_tea@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

MOBILE WORLD CONGRESSES BARCELONA 2025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박람회
최신 모바일 기술, 혁신 및 산업 동향, 5G, 인공지능(AI),
IoT, 디지털 헬스케어, 최신 제품 전시 및 발표, 글로벌 네트워크

개최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Spain Barcelona Fira Gran Via]

개최 일자 : 2025년 3월 3일 (월) ~ 3월 6일 (목)



국제 방위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5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2025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방위 산업 & 정부 & 군대 및 군인 최신 방위 기술 및 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장소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ADNEC)]

개최 일자 : 2025년 2월 17일 (월) ~ 2월 21일 (금)



프랑스 파리 항공 에어쇼 2025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2025

세계 최대 항공우주산업 전시회 '파리에어쇼 2025'
항공기 제조업체 & 방위 산업 & 우주 산업 & 부품 및 장비
비즈니스 및 일반 항공기, 연구 및 개발

개최 장소 : 프랑스 르부르제
[Parc des Expositions du Bourget]

개최 일자 : 2025년 6월 16일 (월) ~ 6월 22일 (일)

www.snmiles.com

MICE, 일반 여행,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비즈니스 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증권거래세율 원안 유지하고 배당 분리과세, 별도 논의해야”

금투세 도입 가정하고 논의된 사안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인하
배당 분리과세, 주주환원 차원 고려
내년 세수 감소 규모 더 커질 수 있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야당의 동의로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금투세 도입
과 함께 논의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와 거래세율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
다. 두 사안이 금투세 도입 시를 가정
하고 논의되었기에, 세수를 위해서라
도 원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금투세와 별개
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
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
나,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원안을 그
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
년부터 진행된 거래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래 시 0.18%의 증
권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 0.15%(0.03%p ↓)로 조정될 예정
이다. 이는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도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계획대로 진
행될 경우,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
간한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
정적 과급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
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
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
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필요하다”고 밝히며, 증권거래세율 인
하 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
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실 개인투자
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크게 부담되는
세제 항목은 아니다”라면서도, “증권거
래세가 다시 늘어나면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금투세 도입만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 도입에서는 금투세 폐
지로 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하지
만 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고소
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일종의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
화를 위해서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
증권학회 회장)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논의할 필요가 없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밸류업 정책’
이나 ‘주주 환원’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금투세
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큰 경
우가 많아, 배당액을 높이려면 기존안
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는 세금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안
을 채택한 바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
세도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 원
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상향해 적
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치투자의 대가’인 이재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도 “종합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를 분리하지는 명분을 세우려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
며, “개인에게는 배당소득세율을 2000
만 원 초과 시 세율 15.4%를, 대주주에
게는 세율 25%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투
세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승연 “도전·혁신으로 글로벌 운용사 도약”

(한화그룹 회장)

한화자산운용 본사 방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5일 한화자
산운용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자
산운용사로서의 혁신과 도전을 주문했
다. 이 자리에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금
용사업을 이끄는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
글로벌책임자(CGO, 사장)와 김중호 한
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자산운용은 어
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도전과 혁신
을 거듭하며 운용자산 100조원이 넘는
국내 최고의 자산운용사로 성장했다”
며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화자산운용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내 골드만삭스, KKR, 테마섹 등
약 5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네트워크
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력을 높이고 있다. 미주법인은 샌프란
시스코 본사와 뉴욕 사무소를 기반으
로 선진 금융시장과의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법인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활용
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은 지난해 미
국 현지 대체투자 펀드 출시 등의 성과
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재원 외에도 금융투자 전
문성을 갖춘 10인을 직접 현지 채용하
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투자 경
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회장은 프라이빗에쿼티(PE) 사업
본부 직원들의 ‘1등 한화’ 의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직접 밀봉하며 한화자산운
용의 선전을 함께 기원했다. 김 회장은
“주식, 채권 같은 전통자산 및 대체투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이 한화자산운용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분야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지속 가능
한 경쟁력을 갖추 나가자”며 “빠른 속도
로 성장 중인 프라이빗에쿼티(PE) 및
벤처캐피탈(VC) 부문과 ETF, 연금 사
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해 투자자들의 내일을 더
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자”고 제언했다.

한화자산운용의 대체투자 부문은 P
E·VC, 인프라, 부동산 각 사업이 지속
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올해 9월 말 기
준 운용규모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PE·VC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
산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성
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상장한 ‘PLUS K방산’ ETF
는 ‘K방산’의 수출 성과에 힘입어 올해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10월 31일 종가 기준 62.21%)을 거두
며 순자산규모가 2500억원 수준까지 성
장했다. 최근 한화자산운용은 ‘K방산’
의 뉴욕 증시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치열
한 경쟁 속에 매 순간 열정을 다해 몰입
하는 자산운용 임직원 여러분은 이미
한화를 대표하는 ‘그레이트 챌린저’라
며 “신임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화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 때 우리 앞
에 놓인 기회는 눈부신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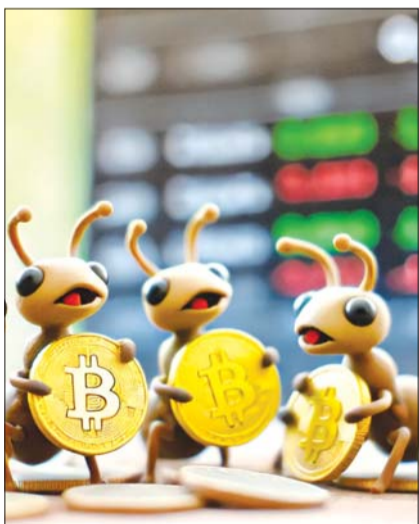
비트코인 ETF로 ‘트럼프 트레이드’ 노린다

해외주식 Click

트럼프, 암호화폐 산업 우호적 입장
현재 약세... 추가상승 기대감 잔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폭락 종목도 ‘쭈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가상
자산 산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서학개
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들도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
F)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미국 대통
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모습이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0월 29일~10월 4일)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비트코인 관련 종
목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 대선이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중 비트코인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 마이
크로스트래지 주가를 2배로 추종하
는 ‘티렉스 2X 롱 마이크로스트래지
데일리 타겟 ETF’와 미국 가상자산 거
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
는 ‘그레닛세어즈 2X ETF’를 각각
347만달러(약 479억원), 3334만달러



GhatGPT에 의해 생성된 ‘비트코인 관련 종
목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
는 개인투자자)’ 이미지.

(460억원)씩 순매수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지지와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최대 수축이다. 지난달에만 약 45.01%
올랐으나, 이달 들어서는 8.79% 급락
하며 내림세에 진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을 자주 보여왔다. 선거유세에서도 그
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
으로 비축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
었다. 이러한 호재가 작용하자 비트코
인은 지난달 29일 약 6개월 만에 개당
7만3000달러(약 1억원)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에 접근했다. 현재는 약
세를 보이면서 4일 만에 약 5000달러가
증발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서학개미들은 마이크로소프
트, 메타플랫폼 등 폭락 종목에도 높은
선호를 보이고 저가매수 전략을 펼쳤
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주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
프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65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는 월가 예상치였던 645억달러도 상회
한다. 하지만 분기 순이익률이 37.6%
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탓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에 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은 저가매수를 선택하며 지
난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6230만달
러(858억원), 메타를 4462만달러(614억
원)씩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키움증권, 민평금리보다 높게 통안채 판매

24종목 중 16종목 매수수익률 높아

키움증권은 민평금리보다 높은 금리
에 통안채를 판매하고 있다고 5일 밝혔
다. 민평금리란 민간채권평가사가 평
가한 해당 채권 금리의 평균이다.

통안채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
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
는 것으로, 키움증권은 보유한 통안채

중 일부를 작은 단위로 개인투자자에게
장외로 판매하고 있다. 매수수익률(판
매금리)이 높을수록 고객에게 더 유리
하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장
외채권 중 24종목 중 16종목의 매수수
익률(판매금리)이 민평금리보다 높다.
현재 키움증권은 신규 채권을 장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발행금리 그대로 판매하
거나 더 높게 판매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두나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기능 추가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
pbbit Market Oversight, UMO)에 시
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5
일 밝혔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
행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
과 호가정보 매칭 등을 구현한 UMO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최근에는 UM

O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
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
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UMO 대시보드에서는 입·출금
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
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
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보일러 맞수’ 귀뚜라미 vs 경동나비엔 ‘특허전쟁’ 후끈

핵심부품 ‘열교환기’ 분쟁

경동, 특허권 4건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 ‘일부 인용’... 일부 판매 중단

귀뚜라미 “특허기술, 이전부터 활용”
경동에 대해 특허무효심판 제기



보일러 ‘맞수’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콘텐츠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를 놓고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무효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선 귀뚜라미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선 경동나비엔이 각각 유리한 입지에 올라섰다.

열교환기 특허에 대한 양측의 법적 공방은 향후 본안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열교환기는 보일러에서 열을 흡수해 물(난방수)을 데우는 핵심 부품으로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라디에이터) 등에도 두루 쓰인다.

보일러 중에선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할 때만 불을 지피 작동하는 순간식 온수기에 열교환기가 들어간다.

귀뚜라미는 순간식과 저장식을, 경동나비엔은 순간식 온수기만 국내서 각각 선보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전날부터 ‘거꾸로 예코 콘텐츠 L11’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전시 등을 중단했다.

이 제품은 귀뚜라미의 콘텐츠 보일러 주력 모델 4개 중 하나로 비중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거꾸로 예코 콘텐츠 L11”은 2021년 8월에 출시해 3년이 지난 제품이다. 지금은 신제품 교체

타이밍이어서 비중이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 “나머지 3개 제품을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콘텐츠 보일러의 ‘열교환기 유닛’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19일 열교환기 유닛 등 4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련 심리는 올해 5월24일 끝났고 지난주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관련 특허 4건은 ▲1번 특허(청구항 19개): 열교환기 유닛(아래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단면적이 감소되는 열교환기 케이스 구조) ▲2번 특허(청구항 19개): 열교환기 유닛(아래로 갈수록 단면적이 감소되는 열교환기 케이스 구조) ▲3번 특허(청구항 13개): 열교환기 유닛(핀 간격이 상부보다 하부가 넓고, 하부 배관이 병렬 구조) ▲4번 특허(청구항 9개): 연소실 및 이를 포함한 보일러(연소실 단열을 위한 공기층 배치 구조)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땐 특허가 침해된 파생모델들을 명확하게 적시해야한다. 상대 회사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 등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나마 가처분이 본안소송에 비해 빠르고, (특허 침해로)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먼저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우리가 피해자라는 게 판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귀뚜라미는 올해 2월1일 특허심판원에 경동나비엔의 열교환기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반격에 나선 것이다.

경동나비엔의 특허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기술인 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귀뚜라미는 양측이 공방하고 있는 특허 기술을 2013년 당시 국책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 그대로 적용하거나 발전시켰다는 입장이다. 해당 열교환기의 원천 기술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동나비엔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특허 4건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귀뚜라미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지난 9월19일 심결을 통해 2번 특허의 대부분(청구항 총 19개 중 18개 무효)과 3번 및 4번 특허의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인정했다. 다만 1번 특허의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다. 귀뚜라미는 현재 무효 불인정 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동나비엔은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든 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귀뚜라미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양측은 열교환기 특허를 놓고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앞서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올해 K-푸드 수출액 8%p 늘어 ‘역대최대’ ‘나만의 창. 작품 싱크’ 이용자 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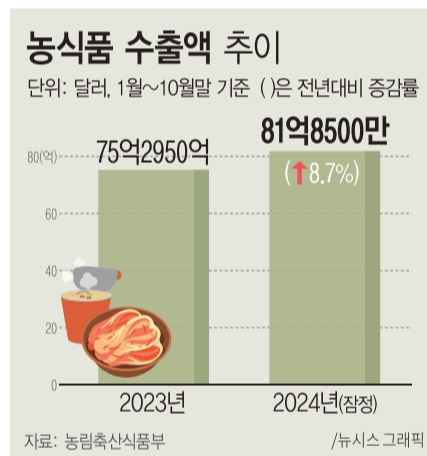
농식품부, 누적 수출액 81.9억 달러
즉석밥 등 쌀 가공품 2.5억 달러 42% ↑

올해 1~10월 누적기준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8%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쌀 가공식품 및 라면 등이 높은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81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4개월 연속 성장세인데다 1~10월 누적기준 실적 가운데 역대 최대치다.

수출 품목별로,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이 2억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55.9% 증가했고, 중국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이 신규로 수출되면서 40.2% 늘었다.

수출액 1위 품목인 라면은 누적 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1억2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라



면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18.6% 증가한 2억1000만 달러, 미국에서 65.0% 늘어난 1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또 네덜란드에서 57.7%, 중남미에서 70.9% 성장했다.

신선식품은 1년 전보다 0.5%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억3470만 달러, 유자는 2.3% 늘어난 4830만 달러, 포도는 24.0% 증가한 3330만 달러다. 특히, 유자는 캐나다,

필리핀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어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캐나다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입점 물량이 확대됐고, 필리핀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유자차가 감기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중국·일본에 집중됐던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세계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중동·중남미·인도라는 3대 신시장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등을 강화해 왔다. 3대 신시장 수출액은 11.9% 증가한 5억400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에서 K-푸드 전시·판매, 요리교실, 바이어 상담회 등을 담은 복합공간으로서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흥대, 성수동, 한강 등 인기 관광지 컨셉으로 꾸몄고, 사우디는 할랄 제품을 전면 배치해 현지 소비자의 관심사를 엮어 소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호석화 ‘휴그린’ 창조추천 서비스

금호석유화학의 건축자재 브랜드 휴그린이 공식 홈페이지 내 소비자 맞춤형 창조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인 ‘나만의 창. 작품 싱크(SYNC)’가 보다 쉽고 간편한 소비자 맞춤형 제안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금호석유화학은 ‘나만의 창. 작품 싱크(SYNC)’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기존의 ‘나만의 맞춤 창조’ 서비스 대비 300%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휴그린은 지난 7월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휴그린 제품 체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나만의 창. 작품 싱크’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의 ‘나만의 맞춤 창조’ 서비스를 리뉴얼한 서비스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휴그린 창조를 제안하고 견적과 시공까지 한번에 연결해준다.

기존 ‘나만의 맞춤 창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주거형태와 공간의 규모 등을 일일이 선택해야 했지만, ‘나만의



창. 작품 싱크’로 리뉴얼되면서 주거형태 및 확장 여부와 창조 교체 공간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적합한 창조 모델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금호석유화학 허권욱 건자재사업부장은 “고객이 창조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거형태에 적합한 창조를 고르는 것이라고 파악했다”며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몇 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선택하면 창조를 제안해주는 ‘나만의 창. 작품 싱크’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큰 호응을 얻어 기쁘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I 활용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확산

산업부, 27일까지 통합수요조사

정부가 AI(인공지능) 활용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27일까지 3주간 AI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으로 산업·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개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2030년

까지 600개의 AI 활용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2032년까지 가용한 신규 연구개발 예산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하는 과제는 크게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 설계 솔루션 ▲AI와 로봇공학을 통해 반복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자율실험실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들

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초격차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에 AI를 적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기술개발 수요를 제기했던 기관도 기술개발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해 추가로 수요를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된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연말까지 검토, 2025년 프로그램형 사업과 산업혁신기반구축 과제에 반영해 상반기 중 공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 기준 강화

환경부, 관련고시 개정 시행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의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됐던 긴급자동차는 2년 연장된 2028년부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공해자동차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차를, 2026년부터는 수소차를 1대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가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한-미, 민간수출 통제 메커니즘 도입 기후변화 대응·공급망 확보 등 기대

산업부, 원전수출 원칙 MOU 가서명
원자력 기술협력 체계화, 분쟁 예방
고위 관계자 “갈등유도 효과 있을 것”

한미 양국이 양국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원전 기업 간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우리 산업부·외교부와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에 걸친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번 MOU에 가서명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미국 엔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 대응 차원인지 묻는 질문에 “체코 원전 계기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웨스팅하우스-한수원 소송 등)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려 한 것”이라며 “(양측이)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기업 분쟁이 처음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미 정부가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번에 (한미간 원전 협력)하

실하게 구축된 것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간 신뢰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 발생한 이슈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미래지향적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스마트 홍수 알리미’로 국민 안전 강화

환경부,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 제공
AI로 홍수특보 발령 시간 3배 단축

정부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홍수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스마트 홍수 알리미’ 도입으로 올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홍수 알리미는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홍수 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안내 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실시했다. AI가 매 10분마다 하천수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제공하면, 홍수예보관이 이를 검증한 후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운영됐다. 이로 인해 홍수특보 발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

소시킬 수 있었고,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지점(75개→223개)에서 신속하게 홍수특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예보했다. 지난해 서울(도림천)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도시 침수 예보를 확대 실시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 총 56회 알렸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해 홍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운전자가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41건의 홍수 경보 발령 정보와 64건의 댐 방류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해 지하차도나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운전 시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대응 경험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개선해 홍수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기업 실현”

한전KDN, 박상형 신임 사장 취임

한전KDN 박상형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전남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디지털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도약, 현장과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과 상생 경영 실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2의 창업 정신으로 재구조화(際舊布新,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베풀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사장은 1962년생으로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 수도권전공고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통계·데이터과학 학사와 숭실대 IT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한국전력 입사 후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직, 디지털혁신추진처장, 경영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상형 한전KDN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KDN

2015년 원자력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1년 원자력 안전진흥 유공 관련으로 국가산업발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원자력 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4년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당시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중책을 담당했고 숭실대 겸임교수와 중앙대 지능형에너지산업 융합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청년층 87%, ‘임금·복지’ 기업 규모보다 중요

고용부,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MZ세대, 직무적성·흥미 우선 고려
63% “임금보다 삶의 균형 중요해”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는 규모보다 임금, 복지, 워라벨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희망 임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고, 필수복지제도로는 특별휴가와 유연근무 등이 언급됐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청년 대다수(87.0%)가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63%는 임금과 복지보다 워라벨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59.1%는 직장선택 시 임금을 고용형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임금수준은 ‘300만~350만원’(25.9%)이 가장 많았으며, 76.3%는 ‘300만원 이상’을 원했다. 적정 근무시간은 ‘40~45시간 미만’(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35~40시간’(16.0%)과 ‘30~35시간 미만’(10.8%)이 순위를 차지했다.

필수적 복지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안식년, 장기근속 휴가 등 특별휴가’(38.5%), ‘유연근무’(35.4%), ‘채택근무’(31.1%)가 병원비·경조사비·대출지원 등 금전적 지원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무를 원하며, 직무 전환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직무 수행에서 ‘적성 및 흥미’(67.7%)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보다 높은 수치다. 직무 전환 고려 여부 질문에는 48.4%가 ‘직무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농업기술 협력·식량안보 대응 모색

서울서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한국과 카리브해(+일부 남미) 지역 관계자들이 5일 서울에서 만나 기후대응 및 식량안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

히, 서인도제도 식량 자급 및 농업 발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와 농촌진흥청은 ‘제14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와 카

리브 국가들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농업협력 사절단의 자메이카 방문, 농진청과 카리브공동체 간 농업기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육아휴직·실업 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 활동 없이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 신청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되며, 부정수급 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경북도, 한 달간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목소리 듣는다

내일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 열려
행정통합 필요성·추진경과 설명
질의응답 통해 궁금증 현장 해소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7일부터 한 달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경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주민 설명회는 11월 7일(목) 오전 10시에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행정통합에 관심있는 주민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설명회로 운영한다.

설명회에서는 도 관계자 및 전문가



경북도청 전경.

가 행정통합에 대한 경과와 내용, 쟁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운영하여 참여자의 궁금증이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부권 설명회

는 경산에서, 북부권 설명회는 안동에서, 서부권 설명회는 구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을 만큼, 모든 권역의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브로슈어 제작·배포, 언론 매체를 통한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와 설

명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여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별 주민 설명회와 함께 도에서는 경제산업 분야, 건설개발 분야,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신도시, 통합신공항 지역 등에는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인 만큼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내용을 주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건전한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스페인서 스마트도시 성과 홍보

부산시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에 참가해 부산의 스마트 도시 비전과 사업 추진 성과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SCEWC는 지난 2011년부터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도시 혁신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올해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130여 개국 1100개 이상의 기업·도시가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에 시는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통합한국관 내 부산관을 운영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시

지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최상위'

대구시는 2024년 지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5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률, ②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 제출률, ③ 중대한 결함 보수 및 보강 적기 조치 기한 준수율, ④ A·B 등급 양호 시설물 비율, ⑤ D·E 등급 취약 시설물 비율로 구성되었다. 대구시는 이 중 ①, ③, ④, ⑤ 항목에서 1등급, ② 항목에서 2등급을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사천시

가을·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천시는 가을철 및 봄철의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4년 가을철 및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 녹지공원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집중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초동 진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과 휴일 공백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의령군

'뭉쳐야 청춘 프로젝트' 참가 모집

의령군은 '뭉쳐야 청춘 프로젝트' 참가자를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뭉쳐야 청춘 프로젝트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가치·특성·이해 향상과 상호 교류로 네트워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의령군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11월 10일과 16일 개최 예정인 이 행사는 청춘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관광지 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기장군, '부산국제수산물EXPO'서 수산물 홍보·유통관로 개척 지원

22개국 364개사, 1062개 부스 운영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 참가
영세 업체 대표상품 전시·홍보

부산 기장군은 오늘부터 8일까지 해운대백스코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부산국제수산물EXPO(BISFE 2024)'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백스코·한국수산물무역협회·수협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수산물 전문 엑스포다. 22개국 364개사가 참여하며 1062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기장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해 독립 부스를 운영한다.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기장의 우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유통관로 개

척 지원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변어존장터'가 공동 참가 형식으로 함께한다.

또 기장군 부스에서는 '기장 건어물 탐방기: 숨은 보석들'이라는 주제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박람회 참가하지 못한 지역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의 대표 상품 전시와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EXPO에서 기장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다양한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를 소개해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확보

지역의료 격차해소 본격화

하동군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진행설계비가 확보되면서 군민을 위한 의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내 취약한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

2022년 12월 전문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의료원 설립을 위

한 지역 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으나, 사업비 과다 등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진행 설계 용역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시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동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최후보로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군의회를 설득함으로써 예산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렸다.

/강진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15만명 방문

작년비 관광객 33.3% 늘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린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에 관광객 15만명이 몰리며 대한민국 가을 축제의 대명사를 여실히 증명했다.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년보다 하루 짧은 9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14만7,688명으로 작년 11만763명보다 33.3%나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축제장에 입점한 지역

음식관과 농특산물, 노을장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역시 전년보다 무려 107%, 두 배 이상 쉼췌어올랐다. 음식관은 전년 1억3,300여만 원에서 2억9,100여만 원으로, 농특산물은 전년 2,100여만 원에서 4,800여만 원으로, 노을장은 1,300여만 원에서 3,6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축제장뿐만 아니라 강진읍내 상권도 함께 호황을 누렸다. 강진 골목상권 이벤트에 군민과 관광객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고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통한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강진(전남)=양수혜 기자 ysn6313@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등 참여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본격 조성된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약 13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KF Wind는 약 485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함께 총 7조5000억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1125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은 약 425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12조원을 들여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03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반딧불이에너지는 약 229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비롯한 총

5조7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앞바다 약 70km 지점에 75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약 13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은 약 425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12조원을 들여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03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SPC, 동남아 빵 시장 저격... “허영인 회장 글로벌비전 반영”

〈SPC그룹〉

몽골 정부관계자 등 ‘패션5’ 방문 베이커리 기술·노하우 벤치마킹 태국·브루나이·라오스 진출 확대 허진수 사장 “적극적 사업 강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방법 모색”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SPC그룹 플래그십스토어 ‘패션 5’에서 허진수 SPC그룹 사장(왼쪽)이 온 하피즈 가지 조호르 주지사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SPC그룹

SPC그룹이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미국, 중국과 함께 글로벌 3대 성장축으로 보고 중요성을 강조해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5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1일 몽골 정부 관계자와 현지 기업가협의회 소속 기업인 10여명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패션5’를 방문해 베이커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패션5는 SPC그룹이 운영하는 한남동 소재 베이커리 카페다. SPC그룹은 균일한 품질관리와 프랜차이즈 경영 노하우, 국가별로 특화된 현지화 전략 등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해외 진출에 성공한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몽골은 한국의 편의점·대형마트·외식 프랜차이즈가 대거 진출하면서 K·푸드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SPC 측은 “몽골 기업인들과 협력하면 그동안 구축한 중국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이외에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서 5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베트남·싱가포르(직진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조인트벤처)·캄보디아·필리핀

(마스터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진출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태국·브루나이·라오스 3개국 추가 진출을 확정했다.

SPC그룹은 지난달 버자아푸드(Berjaya Food)사와 태국 및 브루나이 내 파리바게뜨 운영을 위한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 또, 라오스에서 현지 유력기업인 코라오그룹(KOLA O Group)과 MF계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서구화된 식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 베이커리 시장이 연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40여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해 있다. 파리바게뜨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브루나이와 라오스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 트렌드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PC그룹은 올해 말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글로벌 할랄(HALAL) 인증 제빵공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은 연면적 1만2900㎡ 규모로 파리바게뜨가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향후 진출 예정인 중동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첫 시운전을 참관하고 시제품의 품질 상태를 체크하는 등 본격 가동을 위한 막바지 점검을 했다.

허진수 사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함께 동남아·중동 시장을 중요한 글로벌 성장축으로 삼은 허영인 회장의 글로벌 경영 비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글로벌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비맥주, 유망 스타트업과 교류 ‘동반성장’

‘2024 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비전바이오캡과 업무협약 체결

오비맥주는 지난 4일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2024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행사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 구매·지속가능경영 부문 김석환 부사장 등 오비맥주 임원진이 참석해 스타트업의 발표를 심사하고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오비맥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서울창업허브와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스타트업 밋업’을 열어왔다. 6회째를 맞는 올해부터 ‘오픈이노베이션’이란 명칭으로 지난 8월 참가 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이번 ‘2024 이노베이션 데이’는 데모데이와 스타트업 밋업(Meet-up) 두 개



지난 4일 ‘2024 오비맥주 스타트업 밋업’에서 오비맥주 임직원과 스타트업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작년 우선 선발 기업 중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2024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지난해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더데이원랩·후시파트너스·비전바이오캡·뉴트리인더스트리 등 4개 업체가 1년간의 시범사업화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우수 스타트업으로는 폐효모를 맥주 양조 등에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발표한 비전바이오캡이 선정됐다. 오비맥주는 비전바이오캡과 지속적인 협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효모를 맥주 양조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오후에 개최된 스타트업 밋업에서는 올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1차 선정된 스타트업 7개사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 중 심사점수 상위 업체는 ‘우선 선발’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약 6~9개월간의 PoC(시범사업화) 기간을 거친 후 내년도 데모데이에서 최종 우승을 가리게 된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혈당조절’ GLPro, 매출 4억 달성

출시 5일만에 3100세트 판매

정관장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혈당조절 기능성 제품 ‘GLPro(지엘프로) 코어’와 ‘GLPro 더블컷’이 역대급 판매 속도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관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정관장 가맹점과 직영점 등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 정관장의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의 신제품 ‘GLPro 코어’와 ‘GLPro 더블컷’이 첫날부터 695세트 판매를 돌파하고, 불과 5일만에 3100세트 판매에 약 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차례 완판을 기록한 ‘RXGIN CLEAN(알엑스진클린)’보다 약 2.2배 빠른 속도이며, 2012년 출시 후 1조3000억원 매출을 돌파해 정관



GLPro의 ‘GLPro 더블컷’이 대형마트 매장에 비치되어 있다. /KGC인삼공사

장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한 ‘흥삼정 에브리타임’ 초기 매출의 12배를 뛰어넘었다.

KGC인삼공사는 저속노화 트렌드와 같이 일반인들도 평상시 꾸준한 혈당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혈당 조절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이 ‘GLPro’의 인기 비결이라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 쓱데이 첫 주말 매출 11% 급증

이마트 한우 100억 판매 111% ↑

신세계그룹이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쓱데이 첫 주말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한우는 이마트에서만 100억원 넘게 판매되어 지난해 쓱데이 대비 매출이 111% 증가했다. 또한, 지난 11월 2일에는 이마트 하루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여행 준비는 쓱

데이에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행 상품군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우선, 쓱(SSG)닷컴은 여행 상품 특별 할인가 제공을 위해 라이브 방송과 시간대별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7일 저녁 8시에는 ‘그랜드 조선 부산’ 숙박권을 18만 9000원부터 판매하며, 여기어때·야놀자의 국내 숙박 상품, 익스피디아·호텔패스의 해외 숙박 상품을 최대 12%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2025년 10월까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쓱

데이 전용으로 선보인다. 조선포털엔리조트는 전 호텔에서 객실, 식음, 리테일 상품에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조선 제주, 그랜드 조선 연박 특전, 클럽 이용, 해피아워 등 추가 혜택을 포함한 객실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쓱데이를 맞아 제주항공과 제휴한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스타필드 고양의 ‘쓱데이빌리지’에서는 항공권 및 제주항공과 산리오 캐릭터가 협업한 인형 굿즈 제공 이벤트가 열린다. 아울러 제주항공의 ‘쓱삭 세일’로 최대 5만원 할인된 국제선 항공권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마트 창사 45주년 ‘뽕큐절’ 2단계 진행

내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

롯데마트가 식료품 쇼핑 대축제 ‘뽕큐절’ 2단계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뽕큐절’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롯데쇼핑 창사 45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의 의미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뽕큐절’ 2단계는 앞서 롯데마트가 지난주 선보인 ‘뽕큐절’ 1단계와 동일하게 단 하루만 초특가 판매하는 ‘뽕큐 하루 특가’와 주말 간 주요 먹거리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뽕큐 주말 특가’로 구성됐다. 행사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뽕큐 하루 특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모든 점포에서 날짜별로 진행된다. 7일에는 파프리카, ‘산더미 대파 소

불고기(800g)’를 50% 할인해 판매하고 8일에는 ‘흰다리 새우(100g)’, ‘씨제이 햇반 유기농 쌀밥(210g×12입)’을 가격가에 제공한다. 9일에는 ‘양파(1.5kg)’, ‘퐁퐁’ 등을 60% 할인한다.

주말 고객 대상으로는 ‘미국산 초이스 척아이롤(100g)’, ‘서울 멸균 흰우유(200mL×24)’, ‘국민맥주라거편(500mL)’, ‘캐나다산 삼겹살·목심(100g)’ 등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6000원대 치킨과 40% 할인된 초밥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7일부터 10일까지 ‘한통 가야아득 치킨’은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6495원에 판매하며 ‘ALL NEW 새우초밥’은 13일까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40% 할인한 1만1994원에 내놓는다.

/안재선 기자

약가정책 변화 예고... 韓, CDMO·바이오시밀러·현지화 대응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제약업계, 미국 대선 주목

美 대선 후 약가 인하 강화 예상
CDMO, 美·中 갈등 반사이익 기대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5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약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 발표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그가 당선되면 약가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약사의 자발적 약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규제 신설은 통제한다는 전략이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약가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의 수익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사업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시러큐스 공장이 롯데그룹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가격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이미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미국 정책 변화는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기회, 시장 점유율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미국 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 셀트리온은 램시마, 유플라이마 등 중양과사인자(TNF- α) 억제제 계열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부터 트룩시마 등 항암제까지 다양한 질환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상업화해 미국 의약품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직접 의료진들과 적극 소통하는 등 셀트리온은 독자적인 직접판매 체계를 구축해 미국 의료 현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

삼성바이오에피소도 지금까지 총 8

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동아에스티도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 미국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낸다.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몰도사'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한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비롯해 의약품 원료 공급, 장비 조달 등에 있어서는 미국 대선 두 후보 모두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견제하고 있다. 또 일찍이 추진되어 온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중국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1월 말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 CDMO 기업들의 사업 확대도 활발하다. 후발 주자로 등장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보폭을 넓히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드스립(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올해는 미국 보스턴 캠프리지혁신센터(CIC) 내에 세일즈 오피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차바이오텍도 미국에 생산 기지를 세웠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에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 시설을 완공했고, 올해는 제2공장 확장 계획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차바이오텍은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를 통해 바이러스 캡시드 분리 분석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생산 공정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실행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글로벌 빅 파나 중국과의 갈등 심화를 예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그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탈중국에서 발생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자국민 보호, 자생력 강화 등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질 수 있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며 "결국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나 경쟁력 제고에 답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

'이너웨어' 최대 85% 할인

카카오스타일의 e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이너웨어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너웨어 페스타는 인기 이너웨어 브랜드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행사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카카오스타일은 '김탄브라', '코데즈컴바인이너웨어', '에블린', '애니바디' 등 2000여 브랜드 상품을 최대 8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인기 상품과 가을·겨울 신상품을 비롯해 발열 내의, 스타킹 등 보온 제품과 따뜻한 소재의 실내복을 할인가에 선보인다는 게 카카오스타일 측 설명이다. 카카오스타일은 48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브랜드별 릴레이 특가도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스타벅스

커피·간식, 별8개로 해결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지컬 8 스타(Magical 8 star)'에 음식 2종을 새롭게 추가해 혜택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매지컬 8 스타'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시범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별 12개 적립 시 무료 음료 쿠폰을 발행했던 방식과 달리, 별 8개를 모은 골드 회원에게 스타벅스 음료 4종 중 1개를 제공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지컬 8 스타' 혜택을 음료에서 음식 상품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테', '아이스 커피', '오늘의 커피'에 더해 '버터바'와 '소금빵'을 혜택 상품으로 새롭게 추가했다는 게 스타벅스코리아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에이피알

자사몰 '블랙 프라이데이'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오는 22일까지 메디큐브 자사몰에서 '2024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화장품과 메디큐브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에 최대 84%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다양한 사은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에이피알은 ▲부스터 프로 ▲울트라 튠 40.68 ▲하이 포커스 샷 등 인기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를 특가로 선보이며 기획전 세트 구매 시 추가 할인이 더해진다.

화장품의 경우, 일주일마다 새로운 할인세트가 구성된다. 각 주마다 스킨케어 제품군별 행사가 열리고 매일 4시간 동안만 운영되는 '9900원 골라담기' 등 풍성한 마케팅이 이어진다.

/이청하 기자

혈액·소변 검사로 '암' 조기 발견한다

생명연, 'SCOPE' 플랫폼 개발
하버드와 공동 개발한 혁신 진단법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이용,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강태준 박사 연구팀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하버드 의과대학(HMS),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혈액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 검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진단 플랫폼 'SC

OPE'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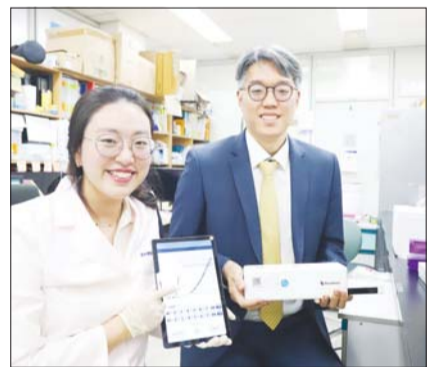
액체 생체검사법은 혈액이나 소변과 같은 체액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암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한다.

기존 조직 생체검사법이나 영상진단법보다 간편하지만, 체액 내 바이오마커의 양이 매우 적어 그동안 임상에서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연구팀이 개발한 SCOPE는 종양 세포가 방출하는 세포 외 소포체(EVs)의 mRNA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13a)를 이용해 대폭 증가시켜 감지해 한

계를 극복했다.

연구팀은 SCOPE를 동물모델에 적용해 극소량(40 μ l)의 세포 외 소포체 샘플만으로도 초기 폐암을 진단했고, 대장암 환자의 샘플에서는 기존 PCR 검사보다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암 돌연변이 유전자를 검출하며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SCOPE 플랫폼은 16개의 샘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결과도 40분 만에 제공한다. 연구팀은 국내 분자진단 전문기업 ㈜레보스케치와 협력해 소형화하여 기존의 복잡한 장비 없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강태준 박사(오른쪽)와 성균관대학교 송자연 교수가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이용,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 의료현장이나 연구현장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니스프리, 미니니와 한정판 세트 선택

'코지 하우스 에디션'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고효능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라인프렌즈 미니니와 협업해 '코지 하우스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출시된 것으로 이니스프리 베스트셀러 5종을 포함한다.

조그만 외모지만 반전 매력력을 가진 귀여운 라인프렌즈 미니니 친구들이 그려진 박스에는 '그린티 씨드 히알루

론산 세럼'을 비롯해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크림',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레티놀 PDRN 스킨부스터 앰플', '블랙티 유스 인핸싱 앰플'이 각각 담겼다. 소장 가치를 높인 미니니 스티커도 제공되고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을 소용량으로 더해졌다.

'코지 하우스 에디션'은 오는 6일부터 이니스프리 공식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 이니스프리는 미니니 폴딩박스과 미니니 샬리니 리유저블팩도 마련했다. /이청하 기자

SK바이오팜, 뇌전증 환자 'AI 솔루션'

SK바이오팜이 지난 4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AI) 서밋'에서 뇌전증 환자의 질환 관리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환자의 자발적 데이터 제공과 지속적인 참여라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SK바이오팜의 이번 뇌전증 관리 플랫폼은 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작 예측과 알림 기능을 구현해 환자의 사용 가능성과 유지성을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뇌전증 환자 관리 플랫폼은 모바일 앱, 스마트워치, 의료진 웹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기반 발작 예측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모바일 앱은 발작 이력, 발작 통계, 발작 유발 요인 기록, 복약 내역을 제공한다.

또 실시간 발작 알림과 예측 기능은 환자 및 보호자가 발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이청하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iM증권, 창립 35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 전개

iM증권은 취약계층 가정에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iM증권의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무용 iM증권 사장(오른쪽)과 김창준 효창중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미리산 타 나눔'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증권



아시아나, 항공부문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아시아나항공이 '2024 한국서비스품질지수(이하 KS-SQI)'에서 '항공부문' 1위 항공사로 선정됐다. 김진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왼쪽 두번째)과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KS-SQI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보, 'KIBO 사회공헌주간' 돌입... 릴레이 나눔활동

기술보증기금이 9일까지를 'KIBO 사회공헌주간'으로 선포하고 릴레이 나눔활동을 추진한다. 5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립부산과학관과 함께하는 팝업과학관 ▲장애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출근길 연주회 ▲지역 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릴레이 식으로 펼친다. /기보



호서대, 환경부 'ABS 솜품 공모전' 최우수상

호서대학교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한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솜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허연교 학생, 박수진 지도교수, 함가연, 박채원 학생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서대

인사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장 김연우

부음

▲서정우씨 별세, 신상례씨 남편상, 서형석(연남뉴스TV 스포츠문화부 기자)·경석·정석씨 부친상 = 5일 오전 8시38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7일. 02-958-9545
▲도현배씨 별세, 김지일(김포우리병원 행정원장)씨 남편상 = 5일 오전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031-999-1444

SK이노, 집중 봉사주간 운영... “지속가능한 사회 기여”

계열사 구성원 3100명 참여
폐플라스틱 수거, 헌혈 등 진행

SK이노베이션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집중 봉사주간을 가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주간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8개 자회사 구성원들이 ▲무료급식 '밥퍼' ▲발달장애인과 독거노인 돌보기 ▲자연환경 지킴이 ▲헌혈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집중 봉사기간(Volunteer Week)을 실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총 3100여명이 참여해 모두 1만 1000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급식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특히 이번 집중 봉사주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만들기, 폐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등 새로운 봉사활동도 기획해 구성원 8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이번 봉사주간에 SK이노베이션

계열 경영진도 적극 참여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구성원 60여명과 함께 헌혈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명성 SK어스온 사장은 독거노인 결연 봉사활동을, 김원기 SK엔트브 사장은 자연환경 지킴이

봉사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지속가능한 환경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기본급 1%를 적립해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으로는 올해 난치병 환자 소원성취 프로그램,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건립 등 사업을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저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대한민국 안전 대상

네이버 1784, 스마트 빌딩 최초 ‘대통령상’

첨단기술 융합 안전체계 구축

네이버가 소방청이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안전관리를 선도한 기업에 수여한다.

2022년 완공된 네이버 제2사옥 1784는 스마트 빌딩 중 최초로 최고 부문 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민간



네이버 1784 전경. /네이버

오피스 빌딩으로도 첫 사례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트

윈·로봇·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로봇 친화형 건물 특수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안전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1784 완공 이후 3년간 총 21건의 공간 안전 매뉴얼 및 지침을 수립해 공간 안전 관리를 체계화했으며 방연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비상 대응 키트 6000여 개를 건물 내 전 좌석에 구비하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 장비도 배치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마그나, 안전한 사업장 입증

LG 전자사업 한 축... 대통령상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안전관리 사업장 조성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LG마그나는 2021년 7월 LG전

자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마그나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전기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구동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으로 LG전자 전자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LG마그나는 모든 임직원의 안전 의식이 높고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활동이 생활화돼 있다

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요 소방 시설이나 화기 작업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우수했다.

LG마그나는 회사를 설립할 때 '안전·보건·환경·에너지 경영 방침'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 개선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14일 '나눔 페스타' 개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소외계층을 위한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인사 애장품 경매와 중소기업 제품 15만점을 할인 판매한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한다.

개막행사에선 중소기업계의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두산베어스 이승엽 감독 등 유명인사들이 기증한 애장품 경매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LG이노텍, 과학분야 인재 육성 앞장

어린이 1.3만명에 소재·부품 교육

3000명이 넘는다. 올해 LG이노텍은 3600명을 대상으로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물론 돌봄센터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앞으로 ‘진정한 기쁨과 나눔으로 행복을 더하는 기업’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주변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 취임

(한양대 교수·前 중소기업청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5대 이사장에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사진)가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신임 이사장은 향후 3년간 재단을 이끌게 된다.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10년 10월 당시 청년기업가 육성 및 범국민적 기업가정신을 공유·실천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 '벤처 1세대'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사 겸 회장,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겸 회장 등 민간이 주도해 힘을 모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해 설립됐다.

한 신임 이사장은 “기업가정신이 청소년층까지 보급·확산되고 많은 국민들이 배우고 실천하는 가치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승호 기자

여성벤처협회

‘WoWF’ 비전 선포

(세계여성벤처포럼)

여성벤처기업들이 '2024 여성벤처주간'을 맞아 '미래로 혁신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여성벤처'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세계여성벤처포럼(WoWF) 비전을 선포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에 따르면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24 여성벤처주간 개막식 및 세계여성벤처포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주간행사(5~7일)는 우수 여성 벤처기업 발굴 및 시상, 여성 벤처기업의 지속경영 및 혁신성장을 모색하는 행사로, 국내·외 여성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스타트업 글로벌 IR',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회', '여성벤처 글로벌 혁신성장 세미나 I·II'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김승호 기자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경의선숲길에 걸려있는 작은 공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로그 디자인

아내와 함께 경의선숲길을 걸었다. 끈질긴 여름을 떨치고, 가을의 프롤로그를 느끼고 싶었다. 공덕동에서 걷기 시작해 서강대 가기 전 쯤이 되었다. 남매로 보이는 어린 아이 두 명이 나무에 걸린 공을 잡으려고 높이뛰기를 하고 있었다. 한 아이의 공은 낮은 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지나가던 젊은 연인이 발을 올려 쉽게 내려주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의 공은 더 높은 가지에 걸려 있어, 도저히 손을 뻗어 내릴 수 없는지 청년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 때 멀찍이 작은 벤치에서 인기척이 났다. 벤치에 앉아서 작은 공들의 서사를 모두 지켜보고 있던 외국인 노부부가 우산을 건네주었다. 다행히 키가 꽤 큰 청년이 그 우산을 받아서는 두 번째 공을 가지에서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는 학습도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습도시의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학습도시로 전환하며,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관계와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지역 내에서 지식이 효과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네 가지 중요한 관계적 특성이 지식 공유를 촉진한다. 첫째, 다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 것, 둘째,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는 것,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 넷째, 관계의 안정성이 학습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이 네 가지 특성은 학습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학습도시의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습도시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의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도시의 핵심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주민들 간의 관계가 부족하거나 지식과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학습도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민들 간의 지식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도시의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식 창출과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경의선숲길에서 우산을 건네받아 공을 내린 젊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의 도구와 지식을 공유할 때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도시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10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난다. 48년생 운기가 어려울 때는 만남을 자제. 60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72년생 배가 부르면 물에서 수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84년생 내가 웃어야 겨울도 웃는다.
- 소** 37년생 다 늦은 투자는 뒤통수를 맞게 되니. 49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원숭이따위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73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니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고 할 일도 많다. 85년생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마라.
- 호랑이** 38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 50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온다. 62년생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옳다는 수분수의(守分隨義)의 교훈. 74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다. 86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 토끼** 3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만 같아라. 51년생 외의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6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라. 75년생 초년에 비교적 낮은 복록을 구가하면 말년에 평안하다는데. 87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니.
- 염** 40년생 마음은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2년생 운명 전이는 거의 타의에 의해 전개되는 일이 많다. 64년생 세사의 재벌기도 비운의 역사는 늘 있다. 76년생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이이다. 88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 뱀** 41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3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5년생 친절과 비협함에는 차이가 있다. 77년생 구체적으로 하려는 뜻은 언제나 공평하다. 89년생 경계할 대상이라도 정의롭게 대해야.
- 말** 42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54년생 음주와 과식을 신경 쓰도록. 66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78년생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이 지혜의 영역을 확장하며 변화시킨다. 90년생 무리란 산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 양** 43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면 주변에 관심을 가져라. 55년생 남의 뒷담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6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9년생 환경을 주관하는 것은 조물주의 뜻인 듯. 91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들다.
- 원숭이** 44년생 오늘의 부는 조상의 형설지공(饒雪之功)이다. 56년생 뜻밖의 횡재수에 감사하자. 68년생 자식으로 부모의 재산을 소모시키지 말도록. 80년생 온도는 비슷하지만 춘기(春氣)와 추기(秋氣)는 분명 다르다. 92년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 닭** 45년생 초조하더라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다. 57년생 신념이 강해도 소통은 해야 한다. 69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빛을 갠으러 온다. 81년생 마지않아 부자의 명으로 될 테니 불운해 하지 말자. 93년생 배우자가 자식들 마음에 없단다.
- 개** 46년생 하늘을 뒤집어 땅을 만드는 역량으로 운명을 역전. 58년생 상처 입은 날개를 치우면서 한글탈태를. 70년생 가난한 이의 한 끼는 생명과 관계. 82년생 운이 하강하면 바닥을 치기 전에 상승하지 않는다. 94년생 새롭게 의지를 다져보자.
- 돼지** 47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사연은 있다. 59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수수가 될 수 없음을. 71년생 현상 전이를 보면 지위가 높으면 자식이 없기도 하다. 83년생 상상을으로도 행복. 95년생 형편이 좋을 때만 친구인 경우가 인생사에는 허다하다.

위정자의 한 수가 된 금투세



기지 수집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 같은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혀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이날 코스피는 1.83% 오르고, 코스닥은 3.43% 급등하면서 불기둥을 세웠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

면서 국내 증시 하락에 힘을 더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과생상품 등 금융투자 자산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제도다. 1400만 개미들의 성공 투자 희망을 꺾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당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2023년에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후 여야가 다시 대립하며 내년 1월 시행으로 2년 유예됐다.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개미들의 조세 저항이 커지자 정치권도 개미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던 여야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대변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4년여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줄다리기한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결정했으나, 다

시금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로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재유예’ 의견도 언급됐지만, 차기 지방선거·대선 등을 고려해 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은 개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불안하던 국내 증시가 리스크 요인을 하나 걷어내고, 반등 기미를 모색할 수 있는 전제를 갖춰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두고 정쟁을 펼치는 모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경제규모에 맞춰가 파르게 증가했지만, 금융교육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이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내 주식 시장 전체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기 위해서는 정략의 한 수로 ‘투자정책’을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친구 인연법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다.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 아니던가? 영화 대사 중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라는 말처럼 친구는 마음이 통하고 설사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이해를 해주는 때로는 가족들보다 더한 끈끈한 우정과 의리의 인연이기도 하다. 친구와 비슷한 뜻으로 ‘동무(同務)’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동무라는 말은 정치적 사상이나 주의를 같이 추구하는 ‘동지(同志)’가 연상되어 친구만큼의 정감은 덜 한 듯하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을 지음(知音)이라 하니 이름만 친구라면 지음은 아닐 것이다. 모쪼록 친구 사이의 우정에 있어 가장 유명한 고사 중의 하나는 중국 제나라 시절 관중과 포숙아 사이의 관포지교(管鮑之交)가 아닐까 싶다. 관중은 뛰어난 정치가로서 제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공로가 큰 인물이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포숙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관중은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을 때도 수익을 나눌 때면 자신이 더 많이 갖곤 했다. 하지만 포숙은 관중의 집안이 가난한 탓이라며 이를 이해했고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도 관중이 3번이나 도망을 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포숙은 관중이 늙으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변호해주곤 했다. 후에 재상에 오른 관중은 “나를 낳은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숙뿐이다”라며 “포숙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한데서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하게 된다. 사주명리학적으로는 비견과 겁재가 혼재하면 친구 덕이 박하다. 좋을 때는 좋아도 운기가 어려울 때는 비견은 경쟁자가 되며 게다가 겁재까지 있게 되면 친구로 인해 뒤통수를 맞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대운이나 세운에 비견 겁재가 들어올 때도 강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9	5			1	2	4
7	3					9
				3		
		3	7			1
5	6				4	9
	7		5		6	
			1			
	9					8 7
3	7	5				6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알고리즘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6	8	7	9	2	1	8
2	8	1	9	8	2	9	6	7
9	7	8	2	6	1	2	9	8
8	2	9	7	9	8	6	2	1
6	2	7	2	1	8	9	8	9
8	1	9	6	2	9	8	7	2
1	9	2	8	6	7	2	9	1
9	6	8	9	2	7	1	8	2
7	8	2	1	9	2	8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의왕월암지구’ 앵커기업 등 29개사 유치... 5600억 규모

자족 기능 회복·경제 활성화 도모
우량기업 주아이엔지(주) 등 유치
2500명 직·간접 고용 창출
510억 수준 세수 확보 기대감



의왕월암지구 조감도

/의왕시

의왕시가 의왕월암지구에 앵커사 및 반도체,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 등 29개사를 유치하면서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R&D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는 총사업비 5600억원에 달하는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이하 의왕월암지구) 기업유치사업에 앵커기업 2개사를 포함해 반도체,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 등 29개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의왕월암지구 기업유치사업은 시의 자족 기능 회복과 경제기반 확충을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지구 인근은 현대자동차 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테크노파크 등 의왕시 산업 성장의 메카

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의왕시가 유치한 주아이엔지(주)는 반도체 분야 우량기업으로, 삼성전자 등의 다수의 반도체 FAB&GCS 설계 및

바이오 공정에 적합한 구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총 3개 동(오피스동, 공장동, 주차동), 연면적 19만㎡ 규모로,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아이엔지(주)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1100㎡ 규모의 ▲창업지원공간 ▲의왕시 창업펀드(8억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의왕시와 손을 잡아 눈길을 끈다.

또한, 앵커기업인 비엔비코리아, 인익스를 포함한 에코민, 나이스엔테크 등 4차산업혁명 분야의 건설한 기업들이 의왕월암지구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이와 연관된 협력사들도 추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월암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는 이번 월암지구 기업유치사

업을 통해 건설·운영 단계에서 약 2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운영 단계(2025~2030)에서 510억원 수준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금융(PF대출) 경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의왕시가 핵심 인재 확보가 가능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로 의왕시가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교육부 “수능 수험생, 실물 신분증 필참”

시험 전날 예비소집서 수험표 수령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해야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 부정행위 간주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고,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인정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계·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

수원시, 통합업무서비스 ‘우수사례’ 지정

OECD 공공혁신협약체 공모 선정

수원시가 개발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공혁신협약체(OPSI)가 공모한 2023년 공공서비스 혁신(Call for Innovation in Public Service)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OECD OPSI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매년 발굴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정부·학계·민간·시민사회 등이 800건 이상의 혁신 사례를 제출했다. 한국의 제출사례 43건 중 수원시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서비스를 포함한 7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서비스는 12개 공공기관의 공통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통합 전사적 지원 관리(ERP) 업무 5종, 통합그룹웨어 4종 업무

를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 서비스로 전환했다.

각 기관이 별도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인력을 운용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했고, 민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본 사업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모사업으로 시작됐고, 이후 지속해서 확대 보완해 디지털 전환을 완성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원시 공공기관들은 전산 인프라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고, 비용도 절감했다.

수원시의 혁신사례는 OECD OPSI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국내 혁신사례집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가 국제사회로부터 정부혁신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폐지수집 사고 시 ‘500만원 보장’

65세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

서울시가 65세 이상 어르신 폐지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최대 500만원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경량 리어카, 야

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

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022년)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6일 (수)
음력 : 10월 6일

수도권 날씨
4 ~ 1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7:02 | 해질 / 17:29

지역별 날씨: 연천 -1/11, 동두천 1/11, 가평 0/12, 파주 -1/11, 서울 4/11, 양평 3/12, 인천 6/10, 수원 4/11, 용인 4/11, 평택 2/12, 백령도 8/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0시 투표’美德스빌노치서 해리스-트럼프 동률
▲ 北 탄도미사일 100km 상공 400km 비행 /사진 뉴시스

▲ 日이시바 “자민 공명 연정 유지하며 국민민주와 정책협약”
▲ G7외무장관 공동성명 “北미사일 강력 비난”



▲ 식량안보 위기 대응 강화 카리브와 농업 협력 모색
▲ 메타, 자사 시모델 ‘라마’ 국방 안보 목적 사용 허가 /사진 뉴시스



SPC
동남아 빵 시장
공략 가속화
니



Life

약가정책 변화 예고
韓 제약업계
미국 대선 주목
L2



“새 게임으로 쓴 성장스토리… 기존 틀 깨고 장르 개척했죠”

속깊은 인터뷰 유태웅 님블뉴런 대표

여기, 파천황(破天荒)의 정신으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히 개척하고 있는 게임사가 있다. 바로 님블뉴런이다.

님블뉴런은 넷툰의 자회사로, 2019년 넷툰 산하의 오울블루와 아크베어즈가 합병하여 설립됐다. 현재는 PC 온라인 생존 배틀 아레나 게임 ‘이터널 리턴’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다.

‘이터널 리턴’은 님블뉴런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새롭게 선보인 작품이다. 여러 플레이어가 동시에 시작해 최후의 생존자만 남을 때까지 싸우는 배틀로얄, 팀을 이루어 캐릭터를 선택해 전략적으로 상대 팀 기지를 파괴하는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MOBA), 그리고 서바이벌 요소까지 다양한 장르가 융합돼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 탄생한 것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만큼, 시행착오도 많았을 터. 유태웅 님블뉴런 대표를 만나 님블뉴런만의 개척 이야기를 들어봤다.

-회사 이름에 대한 의미, 소개 부탁한다.

“님블(Nimble)은 민첩하다는 뜻을, 뉴런(Neuron)은 신경세포라는 뜻을 갖고 있다.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만들어내자, 민첩하게 글로벌 시장 대응하고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님블뉴런으로 이름을 선택했다. 게임이라는 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개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포라고 본다면 그 세포들이 잘 뭉쳐서 만들어야 게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 의미로 우리도 합치면서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를 사명에 담았다. 즉, 그 세포들이 모여서 큰 걸 이루듯이 우리도 뭉쳐서 이뤄나가자라는 뜻으로 님블뉴런이라 지었다.”

-님블뉴런의 성장 스토리가 궁금하다.

“‘이터널 리턴’의 성장스토리가 곧 님블뉴런의 성장스토리다. ‘이터널 리턴’은 기존 틀과는 벗어난 장르의 게임이다. 앞에 선례가 없으니 제작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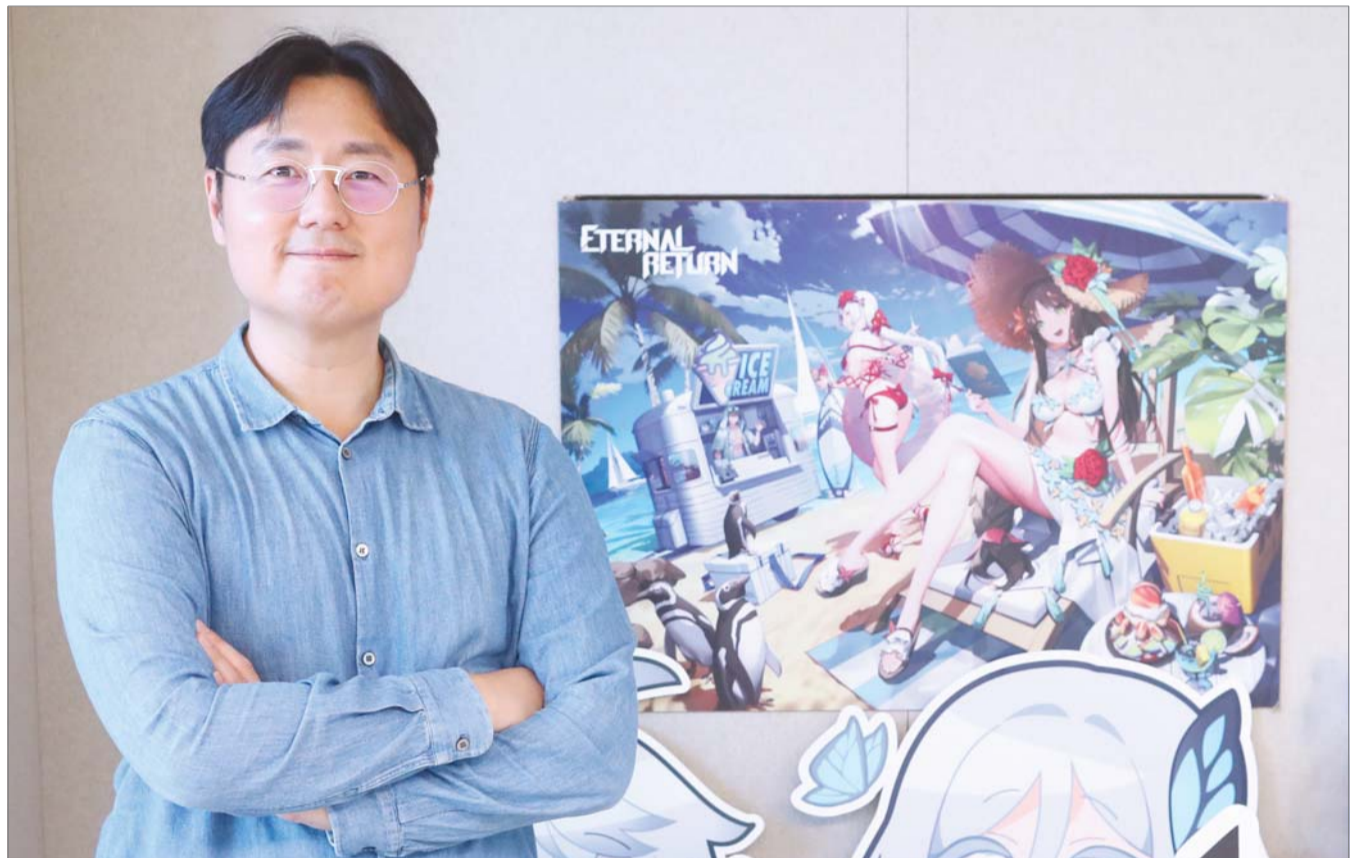
민첩한 신경세포 뜻 담은 ‘님블뉴런’ 날렵하게 게임 만들자는 취지 담아

온라인 생존 배틀 아레나 게임 개발 다양한 장르 융합해 새로운 장르로

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터널 리턴’은 약 3년 전인 지난 2020년 글로벌 플랫폼 스팀(Steam) 사전 체험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게임이라는 게 유저 평가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당시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 3년 동안 그런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에 개발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저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고 커뮤니티와 함께 게임을 같이 만드는 방향으로 성장해야겠다고 방향성을 잡았다.

또, ‘이터널 리턴’은 시즌 중에서 전 시즌보다 나은 평가를 받은 시즌이 한 개, 두 개밖에 없었다. 나머지가 실패였고, 애러였다. 그 과정에서 제작진이 힘을 잃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좋았던 거 같은데 나쁘으니 이렇게 해보자’ 이런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했다. 그렇게 ‘이터널 리턴’이 약 3년간 사전 체험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고, 작년 7월 정식 서비스 하게 됐다.

실패를 맛보며 무언가를 더하기보단 덜어냈다. 많은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쌓여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 블록 중 꺾을 건 꺾고 정제된 사각형으로 만들어 잘 쌓아서 올리면 우리가 해온 운영의 경험과 서비스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유태웅 님블뉴런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님블뉴런에서 본지와 인터뷰 전 포즈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많은 것들을 정제해 정식으로 게임을 출시했다.”

-게임 유저들이 ‘이터널 리턴’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이하 롤)’ 게임과 많이 비교하는데, ‘이터널 리턴’만의 차별점은 있다.

“롤은 게임의 목표가 우리 팀 5명, 상대 팀 5명으로 전략적으로 싸워 상대 진영을 점령해야 하는 게임이다. 두 팀간의 전략 싸움을 통해서 적진을 점령한다. 여기서 오는 전략 재미가 있는데, 이터널 리턴은 3명으로 이뤄진 팀이 총 8개 들어간다. 팀 대 팀이 아니라 팀들 간의 경쟁 방식인 것이다. 적이사방팔방에서 들어온다는 긴장감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 이 외에도 재료나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도구, 무기, 장비 등을 만드는 크래프팅(Crafting), 전투(Fighting)와 생존(Survive)의 요소가 융합돼 들어갔다. 여기서 오는 차별점도 있을 것 같다. 또 전반적인 게임 세계관 분위기를 보자면 서브컬처 쪽이라 볼 수 있다.”

-‘이터널 리턴’을 제작할 때 특별한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솔로 모드, 듀오 모드, 스쿼드 모드 여러 모드를 만들었다. 좋은 재료가 있는 건 맞는데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다르다. 큰 틀은 잡아놨지만, 요리처럼 여기를 익혔더니 여기가 설익고, 이런 식이어서 밸런스를 잡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또, 게임 배급사 분들과도 이야기했던 건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게임은 괜찮은데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

3년간 실패 맛보며 정제과정 거쳐 크래프팅, 전투, 생존 요소 융합해 여러 팀들 간의 전략싸움으로 차별화

대만시장 공략 집중… 유저 수 3배↑ 앞으로 좋은 서비스로 발전해갈 것

런 피드백도 받았다. 이 길을 걸어본 회사가 없으니, 거기서 오는 고생들이 좀 있었다. 그러나 이게 또 팬층이 강하게 형성된 요소기도 하다. 생소한 장르에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 팬들도 생기고, 욕하면서도 잘 만들면 돌아와주고 하는 그런 팬들이 생긴 것 같다.”

-스킨판매, 시즌팩 판매 외 앞으로 생각하는 추가적인 비즈니스 전략 모델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 게임이 어쨌든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 기반 게임이다 보니 역할수행게임(RPG)처럼 자유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넣기에는 고민이 있다. 지난 6월 초보 유저들, 신규 유저들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을 넣긴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구매 유도 등에 대해 게임 유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게임도 유저들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하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

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향후 ‘이터널 리턴’ 말고 개발하고 싶은 게임이 따로 있는지.

“내부에서는 아이디어이션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걸 한다’라고 오픈할 건 없다. ‘이터널 리턴’으로 새로운 장르를 해봤으니까, 이런 세계관과 캐릭터 살리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만큼 우여곡절로 겪은 부분들이 많으니 이를 바탕으로 가벼운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 게임이나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캐릭터를 내볼까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단계다.”

-님블뉴런만의 글로벌 시장 전략이 있다.

“일단 지난 중순쯤에 대만 쪽 퍼블리싱 계약을 해서 현재로서는 대만 시장을 열심히 공략 중이다. 대만 유저 수도 절대적인 수가 처음에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3배 정도 성장했다. 당분간 대만 파트너와 함께 대만 시장 공략에 집중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터널 리턴’ 이용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터널 리턴’을 잘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는데, 못했다가 다시 조금 잘하려고 했을 때 다시 와주시고, 애정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게임 만들고 서비스하고, 계속 좋은 게임으로 팬분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게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프로야구 삼성 신인 15명 입단식…경산서 훈련 시작 /사진 뉴스스
▲박연수, 전 남편 송중국 저격? “양육비, 분노 전 경고”

▲꽃 매체 “토틸, 손흥민에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
▲KBO, ‘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8명에 사회봉사 80시간 제재



▲‘대세’ 장유빈, KPGA 시즌 최종전서 4관왕 도전
▲1년 만에 돌아온 네이마르, 2경기 만에 햄스트링 부상 /사진 뉴스스